



**코로나19 시대**  
**동작구 학부모들의 정신건강**  
**자녀양육현황, 부부 및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21. 2. 20**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 출 문

동작구 의회 귀하

본 최종보고서를 “코로나19 시대 동작구 부모들의 정신건강, 자녀양육 현황, 부부 및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2월 20일

연구기관 : 총신대학교

연구책임자 : 조현섭(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한영주(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상담학과 교수)

원성두(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 김희선(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상담학과 박사과정)

유지혜(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상담학과 석사과정)

보조원 : 최재원(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학사)

황유빈(아이오아주립대 심리학과 학사)

**코로나19 시대**  
**동작구 학부모들의 정신건강**  
**자녀양육현황, 부부 및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실태조사**

# 목 차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필요성.....	8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학부모의 정신건강.....	10
2.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력.....	12
3. 부부관계와 자녀양육 관련성.....	15
III. 연구절차 및 방법	
1. 도구선정 및 개발 .....	18
2. 설문조사 및 분석 .....	22
IV. 실태조사 결과	
1. 동작구 학부모 실태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24
2. 동작구 학부모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	28
3. 동작구 학부모의 부모자녀관계 실태조사 결과 .....	35
4. 동작구 학부모의 부부관계 실태조사 결과 .....	48
V. 교육경험 및 요구도 조사	
1. 동작구 학부모의 부모교육 경험 .....	58
2. 동작구 학부모의 부모교육 요구도 .....	63
3. 동작구 학부모의 부부교육 경험 .....	71
4. 동작구 학부모의 부부교육 요구도 .....	72

VI. 결론 및 향후 정책 제안점

1.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의 부정적 변화에 대한 제안.....	76
2. 부모교육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및 방법 마련.....	78
3. 부부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교육 및 사회적 인식개선 필요.....	81
4. 가족관계 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	82
5. 동작구 지역주민 공동체 활용 방안.....	84
6. 향후 동작구 의회의 역할.....	84

VII. 부록

1.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	87
2. 설문지.....	89
3. 동작구 유관기관 목록.....	100

참고문헌.....	108
-----------	-----

#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코로나19 상황에서 동작구 내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자녀양육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고충을 파악하고자 함
-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자녀관계 및 부부관계의 변화실태를 확인하여 향후 적합한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고통받고 있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실제적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의 필요성

- 자녀양육과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대한 주제이며 부모 개개인이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해야만 효과적인 자녀양육을 실행할 수 있음.
- 물리적으로 부모가 된다고 해서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기는 어려우며 건강한 정신건강을 가진 부모가 부모역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배우고 노력할 때에 좋은 양육이 가능함.
- 특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학교와 단체모임이 제한됨에 따라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이 대두되며 학습과 돌봄의 공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부모의 정신건강상 문제(불안, 우울 등)가 촉발되어 부모자녀관계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됨.
- 다양한 연령층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각기 다른 어려움을 겪게되며 코로나19 시대에 자녀양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률적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자녀 간의 문제가 증폭될 수 있음.
- 동작구의 경우, 242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47개의 초·중·고가 밀집한 지역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필요함.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급변하는 위기의 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상황을 확인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부 및 부모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자료 및 대안마련이 필요함.

##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 1.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학부모의 정신건강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 사태는 2020년 1월 30일 국내 첫 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 연기를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만 1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확산상황에 있다. 방역 모범국가였던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의 위기를 통하여 반복적인 유행이 진행되면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개인과 가정의 사회적 고립이 강화되고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코로나 블루(우울)’, ‘코로나 레드(분노)’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전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되었다(김수연, 2020). 2020년 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서 실시한 대국민 온라인설문 조사(1차~3차 조사)에서는 약 20%의 국민들이 중등도 이상의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이 크게 바뀌면서 많은 국민들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만성적 불안을 경험하고 현 사태에 대한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만성적 우울을 겪고있는 것이다. 장기적인 스트레스, 우울감과 불안을 겪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짜증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 늘어나고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분노와 혐오감정을 강하게 경험하기도 한다(김수연, 2020).

가족스트레스관점(Boss, 2002)에서 보면, 코로나19의 확산은 가족체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가족스트레스 사건(family stressor event)이다. 스트레스

사건으로서 코로나19는 가족생활과 가족관계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다. 가족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해졌고 재택근무가 증가하였으며 보육·교육기관이 문을 닫거나 온라인수업을 하게 되면서 가족원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급증한 것은 한국의 가족생활에서 매우 이례적인 변화이다(진미정, 성미애, 손서희, 유재언, 이재림, 장영은, 2020).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 시간변화를 조사한 국내외 연구결과, 변화가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증가했다는 응답의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 가정 내 부모들의 양육부담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Carlson, 2020; 진미정 외, 2020).

스트레스과정모델(stress process model)의 관점으로 볼 때, 코로나19와 같은 스트레스 사건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 모델에서는 스트레스 사건이라는 1차 스트레스 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과 같은 2차 스트레스 원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강조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위험은 1차적인 스트레스 원이지만 가족생활과 가족관계의 다양한 차원에서 2차 스트레스 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가정경제 악화되고 고용이 불안해지며 가정 내 상황의 변화 등 2차 스트레스 원은 개인의 부정적 정서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Fegert et al., 2020; 진미정 외, 2020 에서 재인용).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은 명백한 2차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보육·교육시설이 운영되지 않으면서 24시간 동안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담, 자녀의 교육을 부모가 담당해야 하는 압박, 자녀와의 갈등과 같은 2차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다양한 2차 스트레스 원은 개인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진미정 외, 2020).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모 개인의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 등의 개인적 정신건강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2.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력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족 형태가 핵가족화·소가족화로 변화하면서 기존에 자녀 양육을 담당하던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남성이 보완적 역할을 하지 않으며 자녀 돌봄을 보육시설에 의존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녀의 인지적 발달에 많은 투자를 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옥분, 정순화, 2007).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곧 부모자녀관계의 어려움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부모자녀 관계가 어려워지면 아동·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나타나고 이는 비행 행동이나 성인기 부적응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

한국청소년개발원(2005)의 청소년 문제행동의 사회적 비용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 문제행동으로 인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은 2004년 기준 음주 약 1,411억, 흡연 약 103억, 약물 약 236억, 가출 2조 2,836억~2조 4,792억, 성매매 약 436억~502억, 범죄 약 5,783억으로 추산되어 총 3조 807억~3조 2,827억원에 달한다.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발생 후 후속 조치를 위해 이처럼 엄청난 손실과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고려하면 청소년 문제행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예방 및 초기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으로의 유입을 예방할 필요가 매우 크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비용을 연구한 여성가족부(2014)의 청소년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생애소득 감소, 보건의료비 지출증가, 소득세 감소, 사회보장비 지출증가, 범죄증가 가능성 및 자살증가 가능성에서 발생하는 전체 개인적 및 사회적 비용의 생애 가치는 총 9,724만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실제적인 비용은 이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과 폭력, 정신건강의 문제 및 중독문제와 같이 청소년 문제요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복잡성을 띄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행 행태를 보면, 그 평균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재범 및 강력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청소년 비행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환경적 요인으로서 가정 내 부모의 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우울 또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박경일, 이상주, 권기형, 2004; 박영숙, 임안나, 2017; 안귀여루, 2010; 이미영, 2010; 이서영, 곽대훈, 2020; 이유경, 2020; 조유진, 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이서영과 곽대훈(2020)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즉, 청소년은 성장과정에서 부모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데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또래관계 발달에 도움을 주며 학대나 방임과 같은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우울, 공격성, 문제행동 및 비행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는 청소년의 성장에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 때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양육태도를 많이 인식할수록 정서적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비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특히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공격성, 정서적 문제행동이나 비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서영, 곽대훈, 2020).

아동기 학대경험이 청소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로는 학대경험이 아동의 사회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비행의 수준 및 정도가 높고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받은 정도가 큰 아동들은 나중에 청소년이 되어 비행을 범하는 정도가 크다고 하였다(윤진영, 2003). 특히 신체적 학대경험은 아동의 성격형성과 심리적 상태, 그리고 학교적응을 비롯한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박현숙, 2008)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 가출과 같은 반항적 비행행동이 높았고 특히 폭력적 비행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명숙, 송사리, 2011). 또한, 부모의 정서적 학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학대를 받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서경험을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정적 내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야기하는 상황과 관련 자극을 피하거나 바꾸려는 시도와 노력을 통하여 감정을 조절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문제행동을 유발한다고 하였고(신현주, 2010) 아동기에 경험한 양육패턴에 따른 정서문제의 영향을 분석한 신은경(2016)의 연구에서는 지속적 학대경험 패턴과 지속적 방임경험 패턴이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방임 역시 아동의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며 부모가 아동에 대한 방임이 높을수록 높은 공격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안나, 2013).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공격성과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에서 부모의 학대는 청소년의 공격성 증가와 청소년의 비행경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현진, 김민, 2016)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동은(2015)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부모에게 받은 학대경험이 청소년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아동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이 아동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청소년 범죄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개인의 문제행동 이면에는 개인이 속한 가정의 문제가 숨어있으며 부모의 역기능적이고 왜곡된 양육이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을 촉발하거나 위기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를 통하여 어린시절부터 자녀의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추후 문제행동과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부모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서의 역할을 습득하고 있지 못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통하여 부모역할을 배워가야 한다. 특히 자녀의 성장에 따라 유동적으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해

야 하고 자녀의 발달에 맞추어 적절한 부모자녀관계를 맺어 가야 한다(정옥분, 정순화, 2007). 이를 위해서는 부모역할에 대한 학습과 노력이 필요한데,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의 제공과 기술습득, 문제행동 해결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존감 및 자아실현을 위해 인위적인 교육과 학습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미선, 2004).

### 3. 부부관계와 자녀양육 관련성

애착의 개념을 체계화한 Bowlby에 따르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감정과 행동은 어린시절에 자신의 경험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 원가족 경험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유아의 경우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여기게 되며 양육자를 안전기지 삼아 주위를 탐색하고 자율성과 효능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최지희, 2013). 즉, 어린시절 부모와 경험한 애착은 대인관계, 정서적 안정성,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응 등으로 성인애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특히 생애 초기 애착경험은 개인의 기대, 지각, 행동 등에 영향을 미쳐 성인기의 대인관계뿐 아니라 이성관계에 일관되게 지속된다(Hazan & Shaver, 1987; 현소진, 2019 재인용). 또한 Bowen에 따르면 원가족의 영향력은 세대 간 전이 과정을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전 세대의 가족관계 유형이 다음 세대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전주혜, 박정윤, 2010). 따라서 어린시절 원가족에서 부모가 자신에게 보인 양육행동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건강한 가족에서 성장한 개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정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김순기, 유영주, 2001). 특히 원가족의 영향은 한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통해 반복되고 이어지고 있다(전주혜 외, 2010).

먼저 원가족 애착경험과 자녀양육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원가족 경험을 긍

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더 보이고 거부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행동은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재봄, 2014; 송수진, 2015; 원수연, 최미경, 2015; 이진선, 정문자, 2007; 전주혜 외, 2010; 조소희, 정혜정, 2008; 최혜선, 2019). 또한 아버지들이 어린 시절 경험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정신적 모델(mental model)이 되어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자녀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권영임, 2012).

또한 원가족 경험은 현재의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과거 원가족에서의 애착경험이 안정적일수록 배우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배우자의 생활태도에 대한 만족이 높았으며 원가족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예남희, 민하영, 2010; 송수진, 2015; 장선웅, 정혜정, 이주연, 2011; 조소희, 정혜정, 2008).

부모의 원가족 경험은 자녀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부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수진, 2015; 최혜선, 2019). 특히 부부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배우자는 서로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자가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자녀를 부부관계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허묘연, 2004) 부부관계가 원만할 경우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이고 자녀양육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수진, 도현심, 2001; 김미성, 정귀연, 2003; 이정순, 2010; 장선웅 외, 2011; 장선희, 2018; 진달님, 2008; 최기원, 2004). 이렇듯 부모의 원가족 경험은 자녀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부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긍정적인 자녀양육행동을 위해서는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부부관계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박철웅, 2003; 장선희, 2018; 최혜선, 201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 개인이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해야만 좋은 부부관계를 맺고 부모가 함께 효과적인 자녀양육을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된다고 해서 누구나 좋은 남편과 아내, 부모가 되기는 어려우며 부부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에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 Ⅲ. 연구절차 및 방법

#### 1. 도구선정 및 개발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와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와 관련된 세 가지 영역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개념을 도출하고 이에 적합한 기존의 타당화된 검사도구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였다. 수집된 검사도구들을 각 영역에 따라 선별하였고 선별된 척도의 과학성과 타당성, 내용 적합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아래의 척도들을 선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검사도구를 개발한 경험이 풍부한 심리측정 및 임상전문가 2인에게 여러차례 자문을 받았으며 연구진들의 지속적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최종 검사도구를 확정하였다. 검사도구의 내용을 아래에 제시하였고 세부문항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 1) 부모의 정신건강 영역

부모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우울과 불안의 두 가지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들을 선정하였다. 먼저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pitzer 등(1999)이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위해 자기보고식 질문 9문항으로 구성하고 안제용 외 4인(2013)이 한국어판으로 개발한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지난 2주 동안 우울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가에 따라 ‘전혀 없다’를 0점, ‘며칠 동안’을 1점, ‘일주일 이상’을 2점, ‘거의 매일’을 3점으로 한 Likert식 척도로, 총점은 27으로 ‘0점~4점’에 해당하면 ‘정상 수준’, ‘5점~9점’에 해당하면 ‘가벼운 수준’, ‘10점~19점’에 해당하면 ‘중간 수준’, ‘20점 이상’이면 ‘심한 수준’에 해당한다. 안제용 외(2013)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95로 문항 간 동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pitzer 등(2006)이 개발하였고 국내에서는 서종근(2015)이 타당화한 일반화된 불안장애 척도-7(Generalized Anxiety Disorder, GAD-7)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지난 2주 동안 불안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가에 따라 ‘전혀 없다’를 0점, ‘며칠 동안’을 1점, ‘일주일 이상’을 2점, ‘거의 매일’을 3점으로 한 Likert식 척도로, 총점은 21으로 ‘0점~4점’에 해당하면 ‘정상 수준’, ‘5점~9점’에 해당하면 ‘가벼운 수준’, ‘10점~14점’에 해당하면 ‘중간 수준’, ‘15점 이상’이면 심한 수준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측정하는 문항은 감염병과 관련된 두려움의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동훈 등(2016)이 개발한 문항과 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2020)에서 사용한 7문항을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한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원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2, 서종근(2015)의 연구에서는 .92로 매우 높았다.

## 2) 부모자녀 관계 영역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효능감의 2가지 수준에서 측정하였다. 먼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정도에 대해 측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2015)가 사용한 8문항을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한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내용으로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내 자녀를 믿는다’,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 등의 긍정문항과 ‘자녀와 자주 다툰다’,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이다’, ‘내 자녀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다’ 등의 부정문항이 모두 포함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부모 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Parent Sense of Competence(PSOC)를 신숙재(1997)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부모로서의 효능감 9문항과 부모로서의 불안감 7문항 중 이은희(2020)가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서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등 양육

효능감과 관련된 9문항을 선택하여 재구성한 문항을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한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9점~45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 5(‘자녀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번과 문항 6(‘부모로서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번은 역채점을 해야 한다. 이은희(2020)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8로 나타났다.

### 3) 부부관계 영역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2015)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총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내용으로는 ‘부부간의 대화형태’, ‘가정 내 의사결정’, ‘하루 평균 대화시간’, ‘대화시간에 대한 만족도’,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하는 영역’, ‘갈등 해결방식’, ‘자녀돌봄 분담정도’, ‘자녀돌봄 분담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이 중 ‘부부간 대화형태’, ‘가정 내 의사결정’, ‘하루 평균 대화시간’, ‘자녀돌봄 분담정도’ 등의 문항은 유목적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 ‘자녀돌봄 방식에 대한 만족도’ 등을 묻는 문항은 ‘매우 불만족’을 1점, ‘매우 만족’을 5점으로 한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배우자와 관계에서 불만족하는 영역’, ‘갈등 해결방식’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 이혼 및 사별가정을 위하여 응답지에 ‘해당 없음’을 추가하였다.

### 4)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정도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독포럼(2020)에서 사용한 질문들을 토대로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전반적 우울감과 불안감의 변화, 부모자녀 관계, 부부관계, 자녀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아이템 구입 등 온라인 관련 지출 변화, 자녀의 정신건강 및 가정의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총 9문항을 재구성하였다. 먼저 우울과 불안 등 정

신건강 변화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반적 우울감과 불안감의 변화에 대해 ‘매우 줄었다’를 1점, ‘매우 늘었다’를 5점으로 한 Likert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의 정신건강 및 가정의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우 나빠졌다’를 1점, ‘매우 좋아졌다’를 5점으로 한 Likert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자녀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아이템 구입 등 온라인게임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한 변화를 묻는 3문항으로 달라진 정도를 질문하였다.

## 5) 교육경험 및 교육 요구도 조사

부모자녀관계 및 부부관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기존에 어떠한 부모교육 및 부부교육 경험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동작구 학부모들이 향후 어떠한 부모교육과 부부교육을 받고 싶은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교육프로그램 요구조사 질문지들을 참고하여 부모/부부교육 경험의 유무, 내용 및 만족도를 파악하는 질문을 포함하였다. 또한 향후 원하는 부모/부부교육의 유무, 내용 및 구체적인 교육의 형식에 대한 질문을 작성하였다.

## 6) 인구통계학적 정보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성별, 연령, 혼인 기간, 자녀 나이, 자녀 양육 형태 및 직업을 묻는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설문조사 및 분석

### 1) 설문조사 실시

코로나19 시대의 동작구 학부모들의 정신건강, 부모자녀관계 및 부부관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조사의 제약으로 인하여 온라인 기반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하였고 동작구 교육청에 등록된 동작구 내 37개 어린이집 및 유치원, 21개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가 참여하였다.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도움으로 동작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를 통하여 학부모들에게 온라인 설문 실시 주소를 전송하여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10일간)였고 설문시간은 약 20~25분 소요되었다. 최종적으로 동작구 내 학부모 53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 2) 통계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평균, 표준편차 등 기초통계를 실시하였다.
- (2) 조사대상자의 부모자녀관계, 부모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등 기초통계를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에 한해서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3) 조사대상자의 부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비율 등 기초통계를 실시하였다.

- (4) 학부모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초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에 한해서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5)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비율 등 기초통계를 실시하였다.
- (6)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및 학부모 개인의 정신건강 및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등 각 항목의 평균값(Mean)과 빈도(Percentile)를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 (7) 조사대상자의 부모교육 및 부부교육의 형태와 내용, 구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Ⅳ. 실태조사 결과

### 1. 동작구 학부모 실태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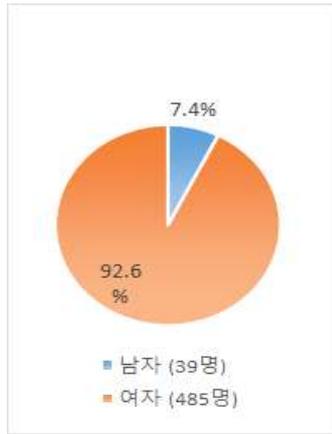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협조를 통하여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학부모들에게 온라인 방식의 설문지를 2020년 12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176부, 초등 176부, 중등 122부, 고등 58부 총 532부가 수집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분석대상이 아닌 7부와 중복으로 응답한 1부를 제외하고 학교급에 맞춰 재배치한 후 어린이집/유치원 163부, 초등 179부, 중등 123부, 고등 59부, 총 52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집/유치원 등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가 전체의 31.1%,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가 34.2%,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학부모가 34.8%로 나타났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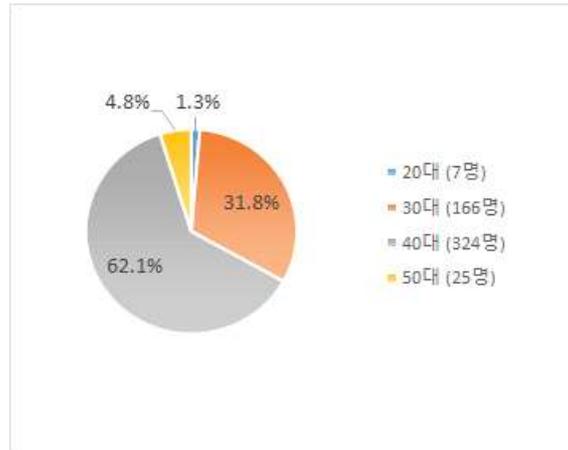
<그림 1>. 응답자들의 자녀 학령기

본 조사에 참여한 524명의 응답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을 보면 여성이 92.6%, 남성이 7.4%로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그림 2> 연령은 28세부터 56세까지의 분포로 평균 41.37세로 나

타났으며 40대가 62.1%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1.8%, 50대가 4.8%, 20대가 1.3% 순이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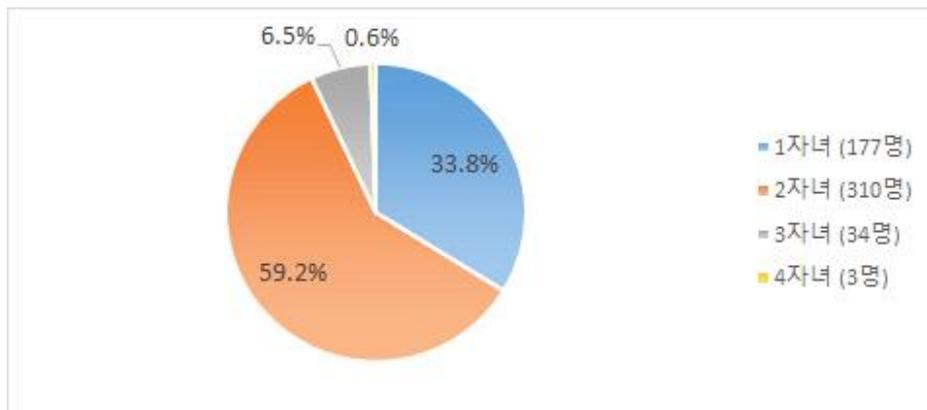


<그림 2>. 응답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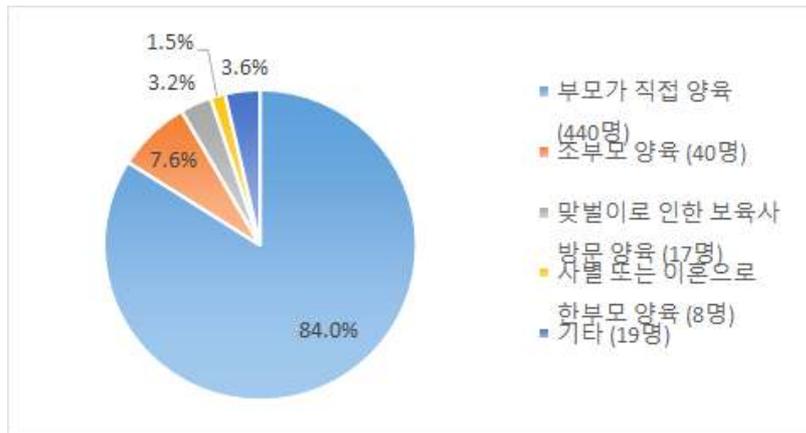
<그림 3>. 응답자 연령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자녀 수는 2자녀가 59.2%로 가장 많았고 1자녀가 33.8%, 3자녀가 6.5%, 4자녀가 0.6% 순이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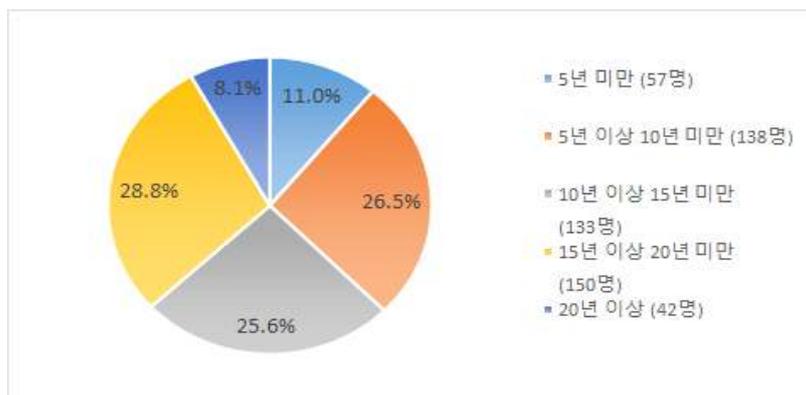
<그림 4>. 응답자의 자녀 수

자녀양육형태는 부모가 직접양육이 84.0%로 가장 많았고 조부모 양육이 7.6%, 맞벌이로 인한 보육사 방문양육이 3.2%, 사별 또는 이혼으로 한 부모 양육이 1.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어린이집과 부모와 조부모가 함께 양육이 3.6%로 나타났다<그림 5>.



<그림 5>. 자녀양육 형태

결혼기간은 1년부터 33년 6개월까지 평균 12년 7개월이었으며 5년 미만이 11.0%,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6.5%,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25.6%,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28.8%, 20년 이상이 8.1%이었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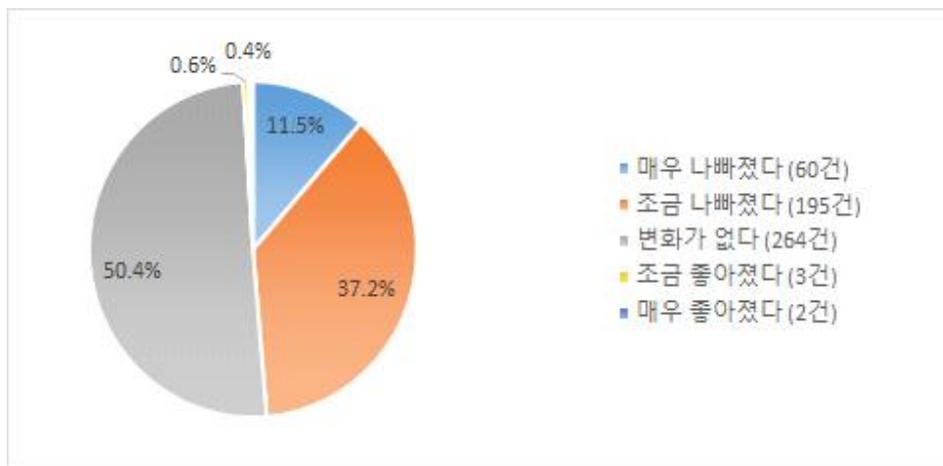
<그림 6>. 결혼 기간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직업은 주부가 40.8%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17.7%, 전문직 15.3%, 교직 10.1%, 자영업 6.5% 순이었다<그림 7>.



<그림 7>. 응답자의 직업

또한 응답자들의 경우,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50.4%, ‘조금 나빠졌다’는 응답이 37.2%로 나타났고 ‘매우 나빠졌다’는 응답 또한 11.5%로 나타났으며 좋아졌다는 응답은 1.0%로 나타났다 <그림 8>. 본 실태조사에 응답한 동작구 학부모들의 경우, 코로나 이후 전반적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가 없거나 다소 나빠진 상황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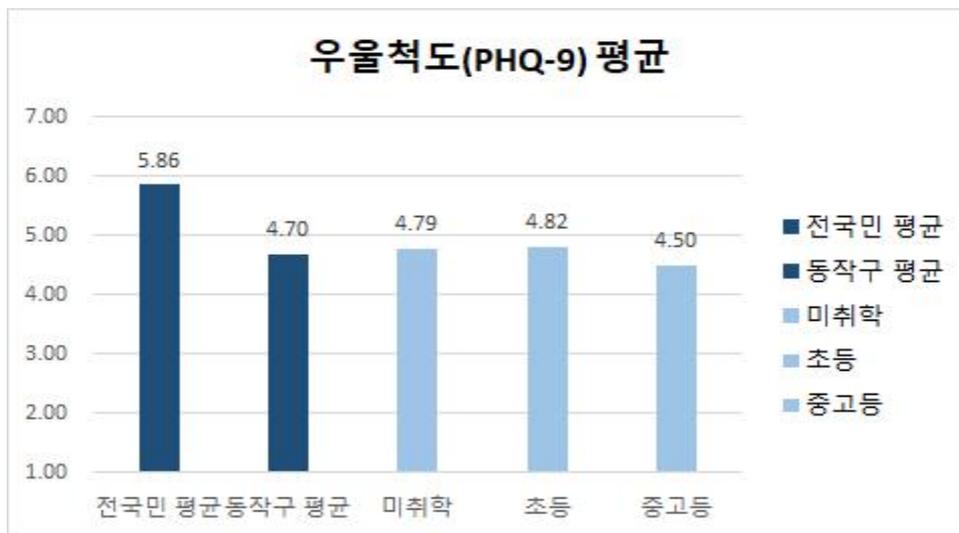
<그림 8>. 코로나 이후 가정경제

## 2. 동작구 학부모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 1) 우울

#### (1) 전반적 우울정도

동작구 학부모들의 전반적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우울증선별도구(PHQ-9)의 전체평균은 4.70으로, 2020년 9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 학회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의 우울 평균인 5.86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동작구 학부모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우울이 낮음을 의미한다. 동작구 학부모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우울평균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는 4.79,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4.5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9>.



<그림 9>. 우울 척도 평균

## (2) 우울 위험군

우울증선별도구(PHQ-9)의 평균점수 절단점(10점 이상)을 통하여 우울증의 위험수준을 평가한 결과, 동작구 학부모들의 우울정도는 ‘정상 수준(0~4점)’이 58.8%로 가장 많았다. 우울 위험군(중간 수준+심한 수준)은 전체의 12.8%로 나타나 2020년 9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시행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3분기) 전국 우울 위험군 평균 22.1%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외에 평균점수 5점~9점에 해당하는 ‘가벼운수준’의 우울이 28.4%, 10점~19점에 해당하는 ‘중간수준’의 우울이 11.8%로 나타났으며 20점 이상 ‘심한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전체의 1.0%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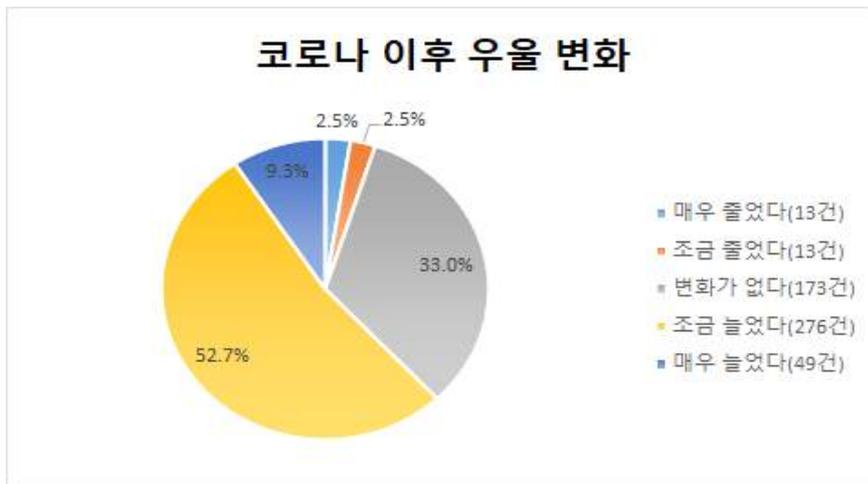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표집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건강 실태조사의 경우, ‘확률적 표본추출방식’을 활용하여 비교적 전 국민이 고르게 포함되는 무선표집 방식으로 조사하였고 본 연구는 학교의 공문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비교적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건강한 표본이 연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많고 자녀의 학교를 통하여 설문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우울’과 ‘불안’ 등 부정적인 문항에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림 10>. 우울 위험군

### (3) 코로나19 이후 우울 변화

코로나19 이후에 우울의 변화정도에 대한 문항에서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62.0%로 나타났다(매우 늘었다+조금 늘었다). 이외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3.0%, ‘줄었다(조금 줄었다+매우 줄었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그림 11>.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독포럼(2020)의 조사결과, 즉 코로나19 이후 전반적 우울감의 변화 ‘(조금+매우)늘었다’는 응답이 45.5%, ‘(조금+매우)줄었다’가 4.9%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전 국민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여 동작구 학부모들의 전반적 우울감 수준은 낮은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울감이 더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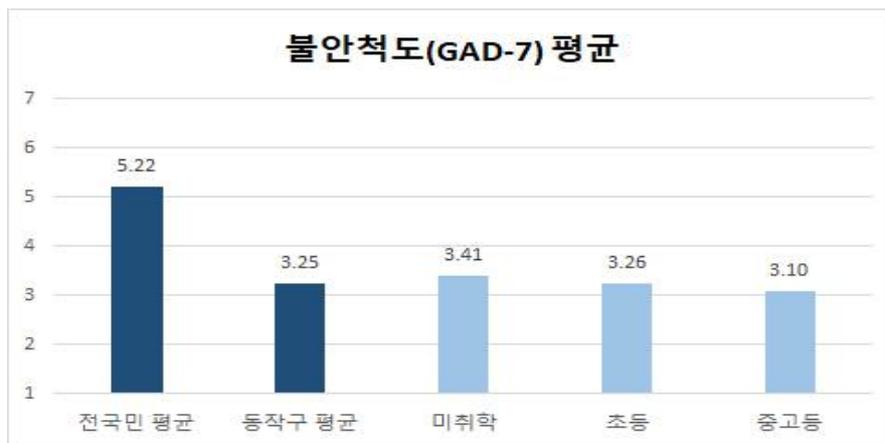


<그림 11>. 코로나19 이후 우울 변화

## 2) 불안

### (1) 전반적 불안정도

동작구 학부모들의 불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한 불안장애선별도구(GAD-7)의 전체평균은 3.25으로, 2020년 9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불안평균인 5.22 보다 낮은수준이다<그림 12>. 이는 동작구 학부모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불안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동작구 학부모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의 부모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각각 3.26, 3.10으로 나타나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린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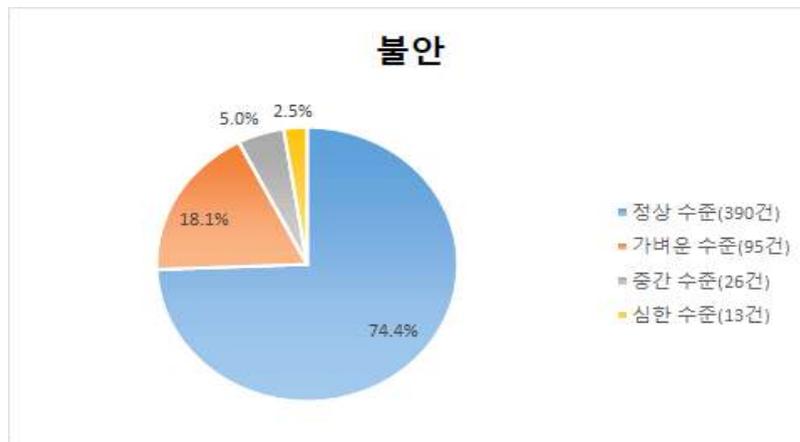


<그림 12>. 전반적 불안척도

### (2) 불안 위험군

불안장애선별도구(GAD-7)의 평균점수 절단점(10점 이상)을 통하여 불안장애의 위험수준을 평가한 결과, 동작구 학부모들의 불안정도는 '정상수준(0~4점)'이 74.4%로 가장 많았다. 불안위험군(중간 수준+심한 수준)은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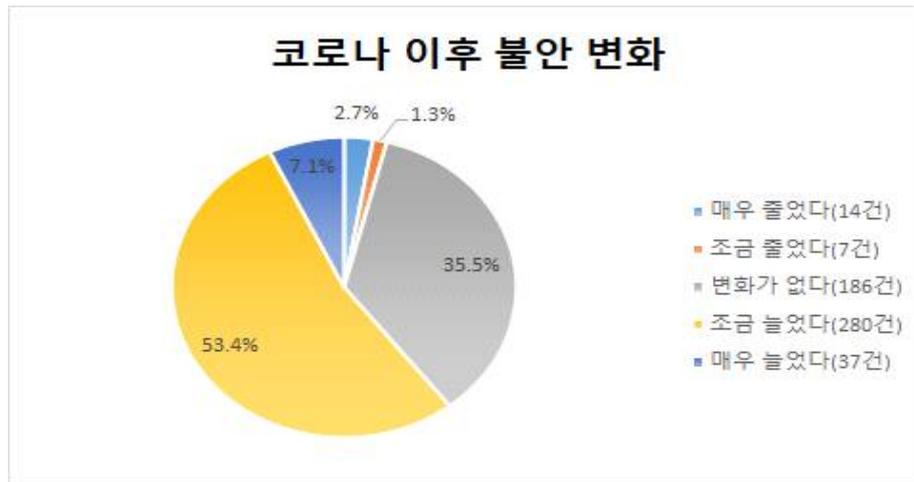
의 7.5%로 나타나 2020년 9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시행한 코로나 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3분기) 전국 불안위험군 평균 18.9%보다 매우 낮은수준이다. 그 외에 5점~9점에 해당하는 ‘가벼운수준’의 불안이 18.1%, 10점~14점에 해당하는 ‘중간수준’의 불안이 5.0%으로 나타났으며 15점이상 ‘심한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전체의 2.5%로 나타났다<그림 13>.



<그림 13>. 불안 수준

### (3) 코로나19 이후 불안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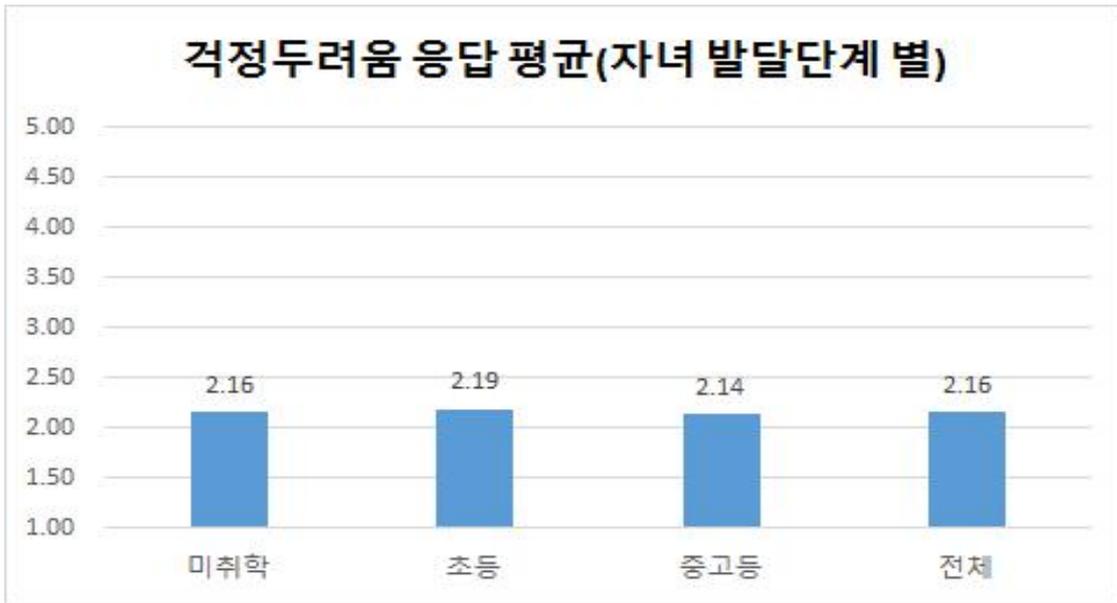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에 불안의 변화정도에 대한 문항에서 불안감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60.5%로 나타났다(매우 늘었다+조금 늘었다). 이외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5.5%, ‘줄었다(조금 줄었다+매우 줄었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다<그림 14>.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독포럼(2020)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전반적 불안감의 변화는 ‘(조금+매우)늘었다’는 응답이 45.1%, ‘(조금+매우)줄었다’가 6.6%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전 국민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여 동작구 학부모들의 전반적 불안수준은 낮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안감의 증가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4>. 코로나19 이후 불안 수준

### 3)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동작구 학부모들의 경험하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의 전체평균은 2.16으로 나타나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시행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3분기, 2020년 9월)에서 전국평균 1.77보다 높았고 같은 조사의 여성평균 1.87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그림 15>. 이는 지난 2020년 9월 전국 평균 확진자 수보다 동작구 실태조사를 시행한 12월에 지역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가 2.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가 2.16,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가 2.14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에 대한 일반적인 걱정과 두려움도 있겠지만 조사 당시 일 평균 확진자가 1,000명을 기록하는 상황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반응으로 보여진다. 이는 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의 연구(2020)에서도 조사시점에 따라 코로나19가 1차 확산시기인 3월 조사에서 1.73으로 나타났고 안정세에 접어든 5월 조사에서는 1.59로 낮아졌다가 2차 확산 시기인 9월 조사에서 다시 1.77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수준

### 3. 동작구 학부모의 부모자녀관계 실태조사 결과

#### 1) 부모자녀관계

##### (1)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는 총 8개의 항목에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항목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M=4.30)’, ‘내 자녀를 믿는다(M=4.25)’,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M=3.9)’ 등의 긍정문항에서는 평균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내 자녀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다(M=2.48)’, ‘자녀와 자주 다툰다(M=2.52)’,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이다(M=2.82)’ 등의 문항에서는 평균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자녀와의 친밀감, 자녀 친구관계에 대한 지식, 자녀에 대한 믿음, 대화정도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어릴수록 긍정적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자녀와의 다툼,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은 초등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중·고등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덜 간섭하고 자녀를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세부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16>.



<그림 16>. 부모자녀관계 문항별 평균

①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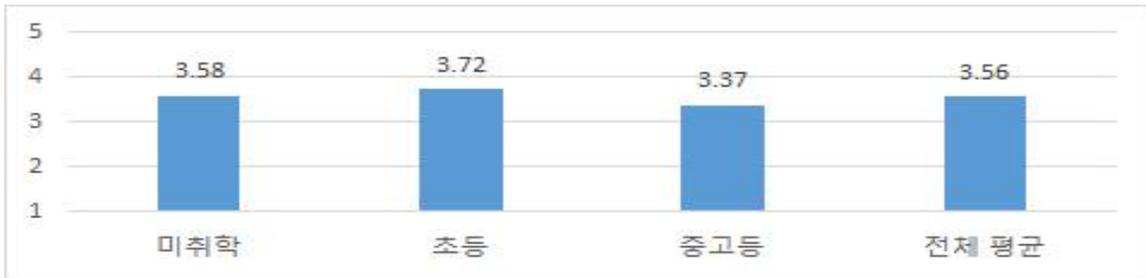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4.3으로 나타났으며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가 4.6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 4.24, 중·고등 4.09 순으로 어린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자녀와 더 친밀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7>. 이를 여성가족부 <2015 가족실태조사> 제3차 조사 결과(M=2.23)와 비교하면 동작구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보다 가깝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사후검정 결과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다른 부모들보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자녀와 친밀도

② 자녀에게 간섭을 하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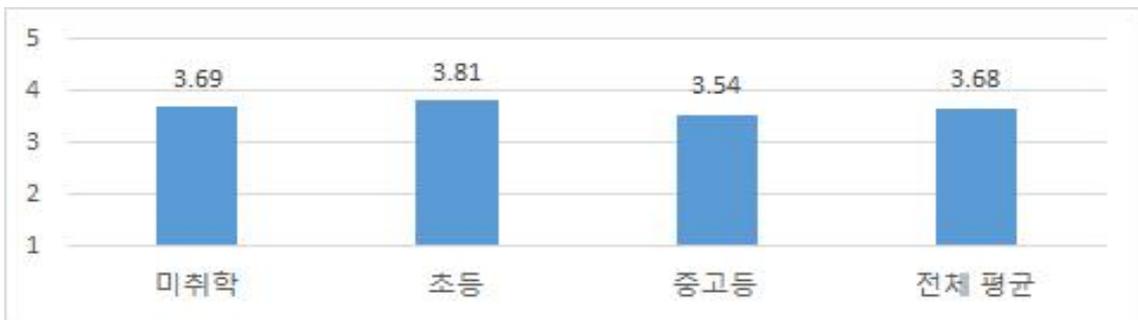
‘자녀에게 간섭을 하는 편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전체평균은 3.56으로 나타났으며 초등자녀를 둔 부모가 3.72로 가장 높았고 미취학 3.58, 중·고등 3.37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8>. 이를 여성가족부 <2015 가족실태조사> 제3차 조사결과(M=2.23)와 비교했을 때 약간 높은 수준으로 동작구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간섭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사후검정 결과 미취학 집단과 초등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덜 간섭을 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자녀 간섭 정도

③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전체평균은 3.68로 나타났으며 초등자녀를 둔 부모가 3.81로 가장 높았고 미취학 3.69, 중·고등 3.54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9>. 이를 여성가족부 <2015 가족실태 조사> 제3차 조사결과(M=2.23)와 비교했을 때 동작구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사후검정 결과 미취학과 중·고등, 미취학과 초등 집단간 차이가 없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보다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더 잘 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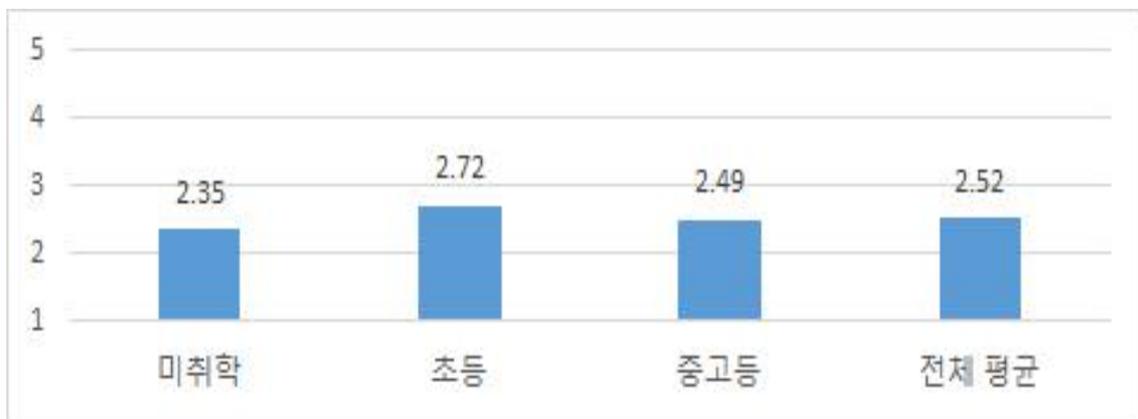


<그림 19>. 자녀 친구에 대한 인지 정도

④ 자녀와 자주 다룬다

‘자녀와 자주 다룬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전체평균은 2.52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가 2.72로 가장 높았고, 중·고등 2.49,

미취학 2.35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0>. 이를 여성가족부 <2015 가족실태 조사> 제3차 조사결과(M=2.23)와 비교했을 때 동작구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와 자주 다툰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01$ )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가 다른 부모들보다 자녀와 더 자주 다툰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의 자율성 및 책임감 수준이 많이 요구되는바 자녀와의 갈등이 증가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율성과 관련하여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부모의 적절한 통제 범위 내에서 자녀의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 개입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그림 20>. 자녀와 다툼 정도

#### ⑤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이다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전체평균은 2.82로 나타났으며 초등자녀를 둔 부모가 3.06으로 가장 높았고 미취학 2.73, 중·고등 2.66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1>. 이를 여성가족부 <2015 가족실태조사> 제3차 조사결과(M=2.39)와 비교했을 때 동작구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의 관계에서 화를 잘 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01$ )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가 다른 부모들보다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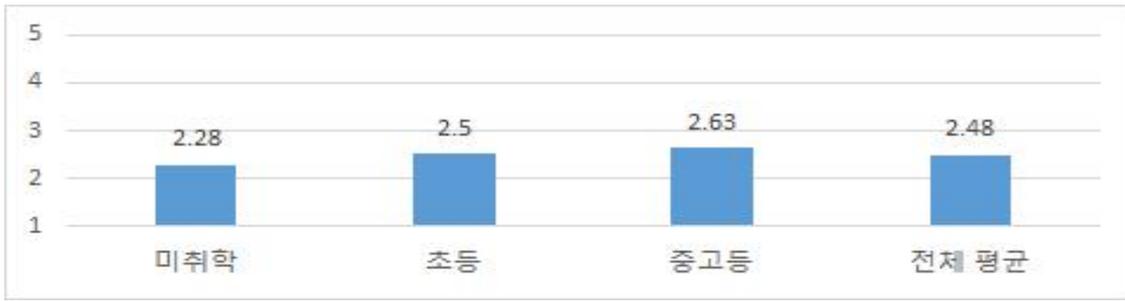
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초등학교 시기 자녀의 자율성 발달과 관련하여 부모자녀 간 다툼이 가장 높을 가능성과 일관된 결과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 자녀의 자율성 욕구와 관련된 부모자녀 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발달 과제이지만 이 과정에서 부모로서 효능감이 저하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스트레스관리’와 ‘분노조절 프로그램’과 같이 부모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녀와의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그림 21>. 자녀에게 화내는 정도

#### ⑥ 내 자녀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다

‘내 자녀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전체 평균은 2.48로 나타났으며 중·고등 자녀를 둔 부모가 2.63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 2.50, 미취학 2.28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2>. 또한, 여성가족부 <2015 가족실태조사> 제3차 조사결과(M=2.46)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보다 자녀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 시기 자녀의 자율성의 욕구를 반영한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나타내는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춘기 청소년의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 자녀 이해하기’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22>. 자녀에 대한 이해 정도

⑦ 내 자녀를 믿는다

‘내 자녀를 믿는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전체 평균은 4.25로 나타났으며 미취학자녀를 둔 부모가 4.47로 가장 높았고 초등 4.25, 중·고등 4.05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3>. 이는 여성가족부 <2015 가족실태조사> 제3차 조사결과(M=4.05)와 비교했을 때 동작구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에 대한 믿음이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01$ ) 사후검정 결과 어린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자녀를 더 믿는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자녀 신뢰정도

⑧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전체평균은 3.9로 나타났으며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가 4.14로 가장 높았고 초등 3.84, 중·고등 3.74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4>. 이는 여성가족부 <2015 가족실태조사> 제3차 조사결과(M=3.37)보다 높은 수준으로 동작구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와의 대화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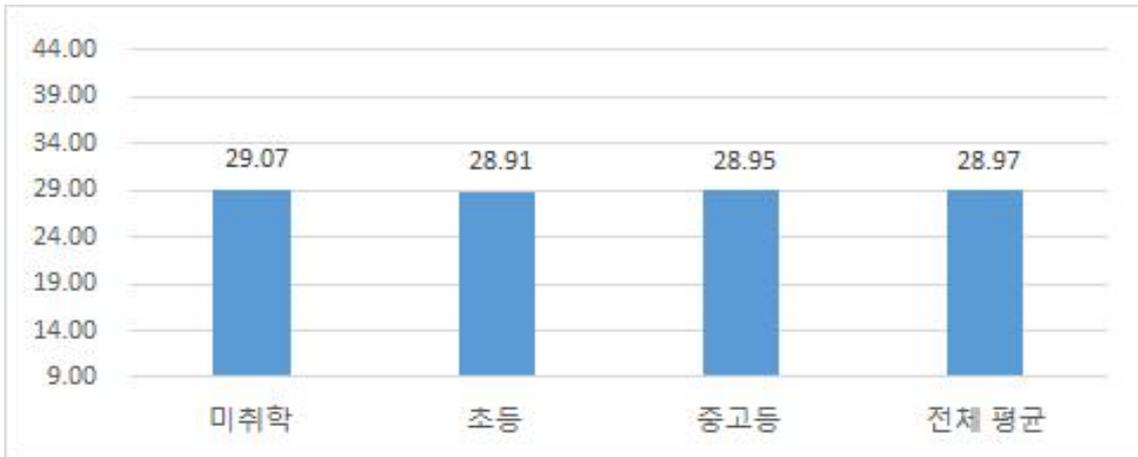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01$ ) 사후검정 결과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다른 부모들보다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자녀와 대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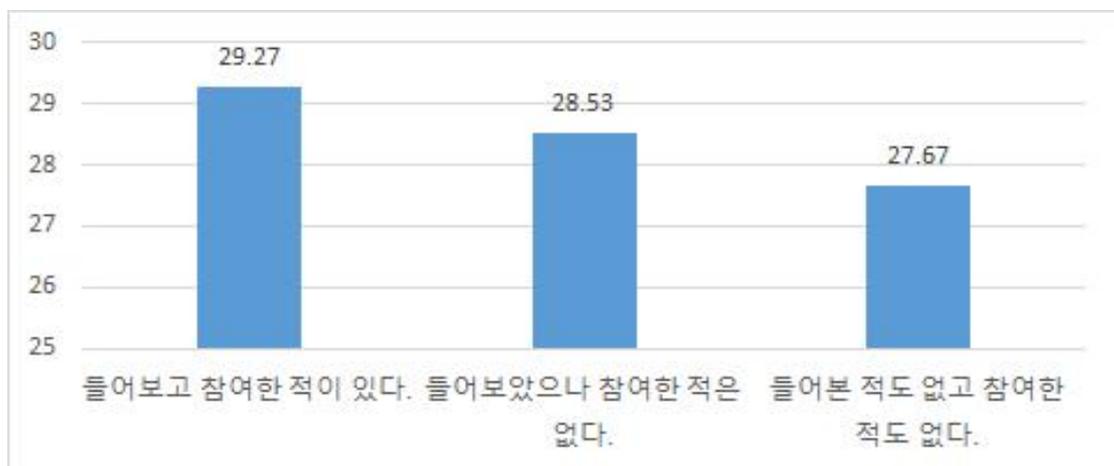
## (2) 부모 효능감

부모 효능감은 부모로서 자신에 대한 유능감과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모 효능감은 총 9개의 항목에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동작구 학부모들의 부모 효능감은 평균점수 28.97로, 5점 중 3.21점으로 보통이상의 효능감을 보였다<그림 25>. 항목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M=3.82)’,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M=3.77)’, ‘자녀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M=3.69)’ 등의 긍정문항에서는 평균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부모로서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M=2.18)’, ‘자녀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M=2.43)’ 등의 문항에서는 평균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동작구 학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하여 보통에서 약간 높은수준의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집단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가 29.07로 가장 높았고 중·고등 28.95, 초등 28.91 순이었는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5>. 부모 효능감

과거 부모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부모 효능감을 살펴보면, 부모교육에 대해 ‘들어보고 참여한 적이 있는’ 학부모들의 경우 부모 효능감 평균이 29.27로 나타났고 ‘들어보았으나 참여한 적은 없는’ 학부모들의 경우 28.53으로 나타났다. ‘들어본 적도 없고 참여한 적도 없는’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부모 효능감 평균이 27.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사후검정 결과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경우 참여한 경험이 없는 학부모보다 부모 효능감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26>. 이는 부모교육이 부모 효능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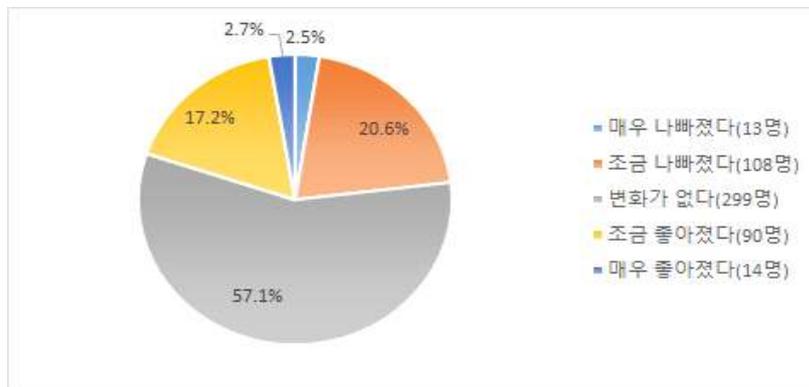


<그림 26>. 부모교육 여부와 부모 효능감

## 2)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변화

### (1) 코로나19 이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변화

코로나19로 이후 자녀와의 관계변화는 ‘나빠졌다(매우 나빠졌다+조금 나빠졌다)’는 응답이 23.1%,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7.1%, ‘좋아졌다(조금 좋아졌다+매우 좋아졌다)’는 응답이 19.9%의 비율로 나타났다<그림 27>. 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부모자녀관계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좋아진 경우보다 나빠진 경우가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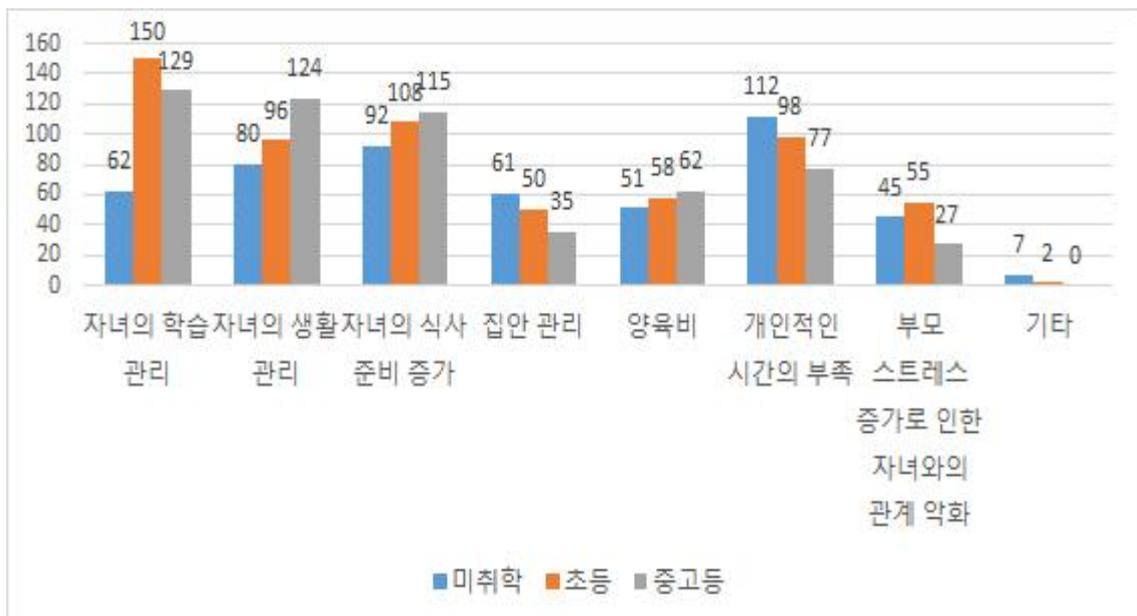


<그림 27>. 코로나19 이후 자녀와의 관계 변화

### (2)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자녀의 학습관리가 20.1%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식사준비 증가(18.6%), 자녀의 생활관리(17.7%), 개인적인 시간부족(16.9%), 양육비의 증가(10.1%) 순이었다<그림 28>.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는 개인적인 시간부족이 21.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자녀의 식사준비 증가(17.6%)와 자녀의 생활관리(15.3%)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의 학습관리가 28.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자녀의 식사준비 증가(20.6%), 개인적인 시간부족(18.7%), 자녀의 생활관리(18.3%) 순이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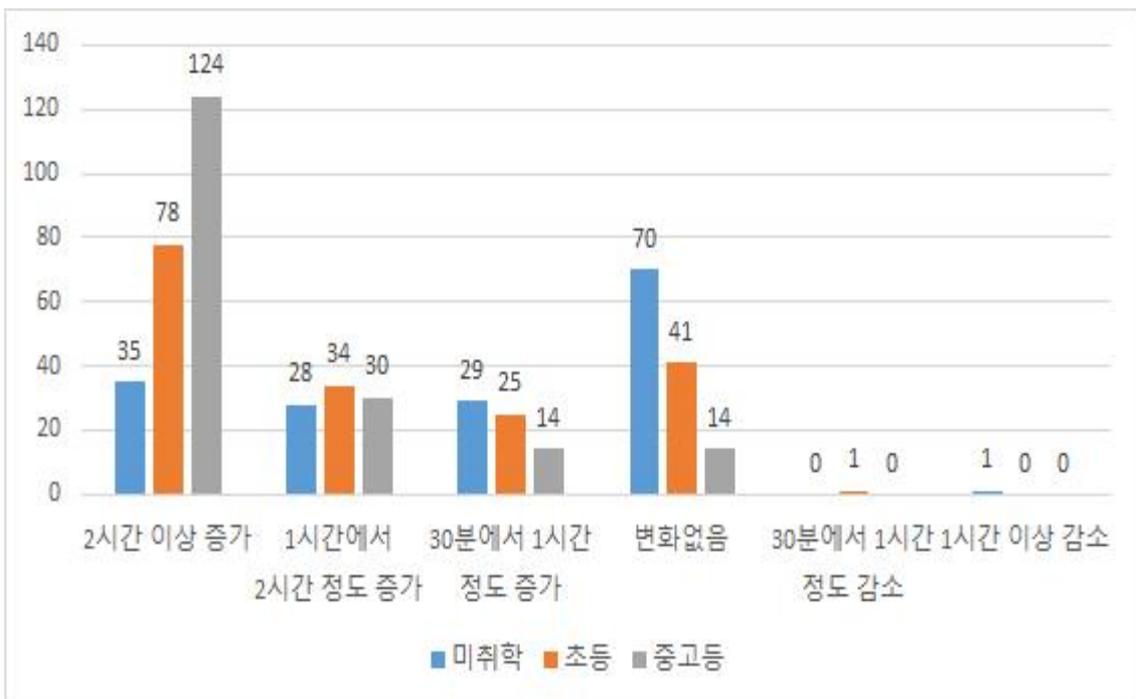
둔 부모의 경우는 자녀의 학습관리가 24.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자녀의 생활관리(23.7%), 자녀의 식사준비 증가(21.9%) 순으로 나타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개인적인 시간의 부족과 자녀의 식사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의 학습관리와 생활관리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사노동 부담 변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힘들어졌다는 비율이 49.1%, 수월해졌다는 비율이 1.71%로 조사된 진미정 등(202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상황이 가정 내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을 여성에게 더욱 전가하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가사노동이 힘들어지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했을 때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진미정 외, 2020). 따라서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고 부부관계 증진을 통하여 공평하게 가사노동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부부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림 28>. 코로나19 이후 자녀와 어려운 점

### (3)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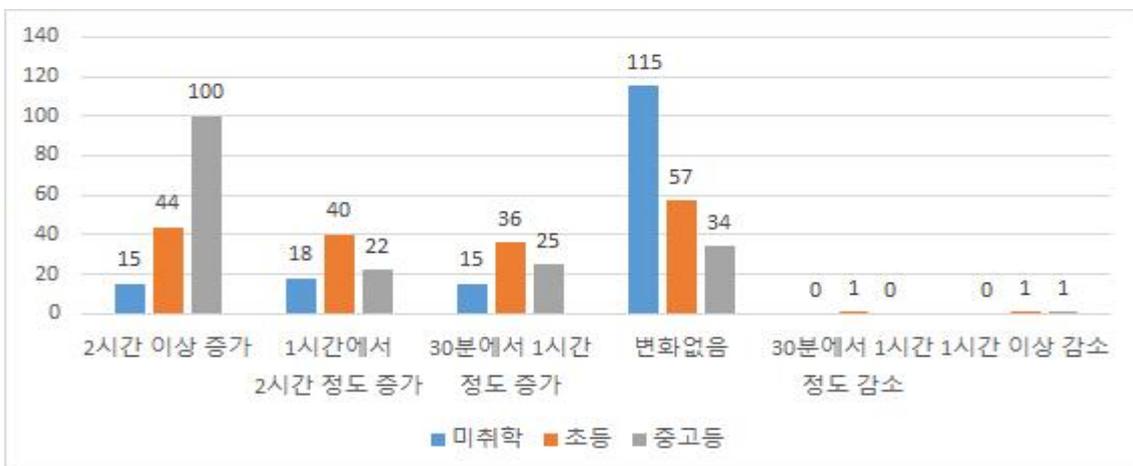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자녀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변화는 ‘2시간 이상 증가’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45.2%로 가장 많았고 변화 없음(23.9%),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증가(17.6%), 30분에서 1시간 정도 증가(13.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코로나 이후 자녀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변화는 ‘증가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75.8%로 나타났고 ‘감소했다’는 응답은 0.38%로 매우 낮게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9>. 이는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 이용상태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 ‘(조금+매우)늘었다’는 응답이 44.3%, ‘(조금+매우)줄었다’는 응답이 4.1%로 전체적인 스마트폰 이용상태가 증가했다는 중독포럼의 연구결과(2020)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은 필수적이지만 자녀가 적절하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고 자녀 스스로가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 잘하기’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림 29>. 코로나19 이후 자녀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변화

#### (4)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하루 평균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변화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자녀의 하루 평균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의 변화는 ‘변화 없음’이 전체의 39.3%, ‘2시간 이상 증가’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30.3%로 나타났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증가(15.3%), 30분에서 1시간 정도 증가(14.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하루 평균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은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응답자 중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하루 평균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변화는 ‘증가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60.1%로 나타났고, ‘감소했다’는 응답은 0.6%로 매우 낮게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게임 시간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0>. 이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게임 이용상태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 ‘(조금+매우)늘었다’는 응답이 24.4%, ‘(조금+매우)줄었다’는 응답은 16.3%로 전체적으로 온라인게임 이용상태가 증가했다는 중독포럼의 연구 결과(2020)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과 더불어 자녀가 온라인게임을 하는 시간이 지나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고 자녀의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온라인게임 관리하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가 게임이나 인터넷, 미디어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 걱정이라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보드게임 및 영화나 음악 감상 등의 대안활동을 통하여 공감과 소통의 기회를 늘려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김수연, 2020).



<그림 30>. 코로나19 이후 자녀 하루 평균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변화

### (5)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온라인게임 관련 비용 지출 변화

또한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아이템 구입 등 온라인게임 관련 비용 지출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코로나 이후 스마트폰 이용상태 변화는 ‘(조금+매우)줄었다’는 응답은 1.7%로 매우 낮았고 ‘변화가 없다’가 74.0%, ‘(조금+매우)늘었다’는 응답은 전체의 24.2%였다<그림 31>. 따라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아이템 구입 등 온라인게임 관련 비용 지출의 변화가 없거나 약간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1>.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온라인게임 관련 비용 지출 변화

### (6)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정신건강(우울, 불안, 스트레스) 변화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자녀의 정신건강(우울, 불안, 스트레스)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나빠졌다(매우 나빠졌다+조금 나빠졌다)’는 응답이 41.6%,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2.7%, ‘좋아졌다(조금 좋아졌다+매우 좋아졌다)’는 응답이 5.7%의 비율로 나타났다<그림 32>.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의 정신건강(우울, 불안, 스트레스)에 변화가 없거나 다소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정신건강 변화

## 4. 동작구 학부모의 부부관계 실태조사 결과

### 1) 부부관계

#### (1) 부부간 대화 형태

부부간 대화형태에 대한 질문에서 ‘둘 다 서로 이야기를 잘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4.5%로 가장 많았고 ‘아내가 주로 이야기하고 남편이 듣는다’는 응답이 16.6%, ‘둘 다 서로 이야기를 별로 안 한다’는 응답이 11.1%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3>. 이는 부부간 대화가 상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 부부간 대화 형태

#### (2) 가정 내 의사결정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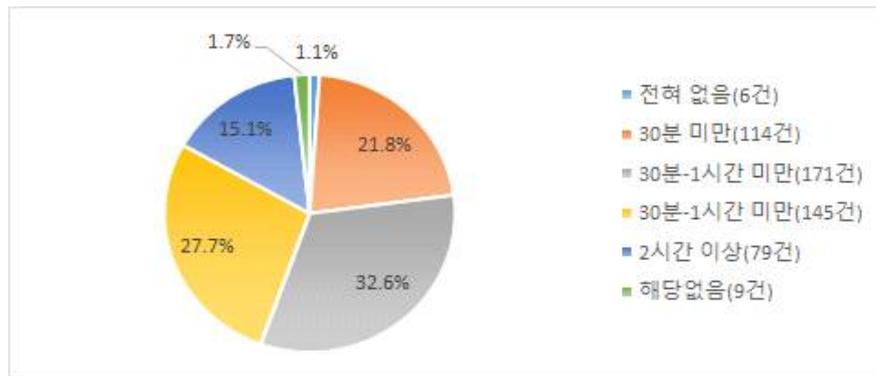
가정 내 의사결정에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9.5%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아내가’라는 응답이 17.7%, ‘대체로 남편이’라는 응답이 12.0% 순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4>. 이는 여성가족부의 전국 단위 조사(2015)에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6.8%, ‘대체로 아내가’라는 응답이 30.9%, ‘주로 아내가’라는 응답이 18.7% 순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가정 내 의사결정 방식에서 남편의 참여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4>. 가정 내 의사결정 방식

### (3) 배우자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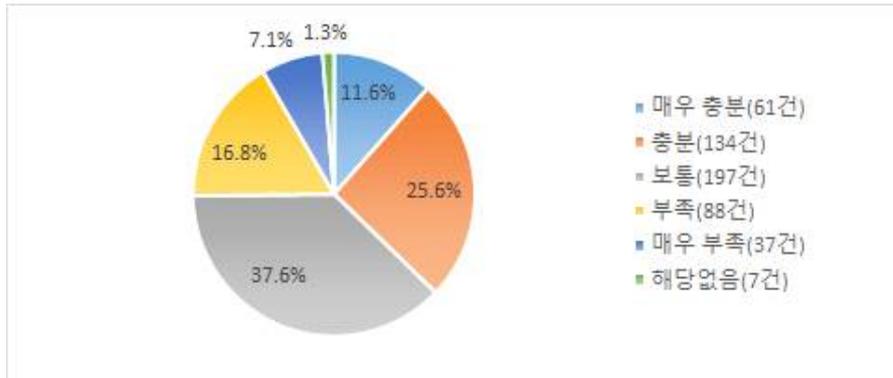
배우자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에 대한 문항에서는 ‘30분~1시간 미만’이 32.6%, ‘1시간~2시간 미만’이 27.7%, ‘30분 미만’이 21.8%로 나타났다<그림 35>. 이는 여성가족부의 전국 단위조사(2015)에서 ‘30분~1시간 미만’이 34.5%, ‘30분 미만’이 29.2%, ‘1시간~2시간 미만’이 20.9%로 나타난 것에 비해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좀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5>. 배우자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

### (4) 배우자와 대화시간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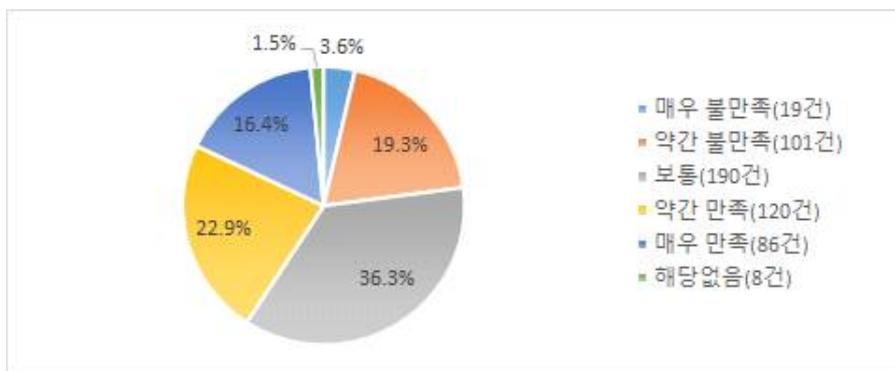
배우자와 대화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37.6%, ‘충분하다(매우 충분+충분)’는 응답이 37.2%, ‘부족하다(매우 부족+부족)’는 응답이 23.9%로 나타났다<그림 36>.



<그림 36>. 배우자와 대화시간에 대한 만족도

### (5) 배우자와 의사소통 만족도

배우자와 의사소통에 대한 문항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36.3%로 가장 많았고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이라는 응답이 39.3%, ‘불만족(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22.9%로 나타났다<그림 37>. 이는 여성 가족부의 전국 단위조사(2015)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39.6%, ‘대체로 만족’이라는 응답이 34.3%, ‘불만족(매우 불만족+다소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19.3%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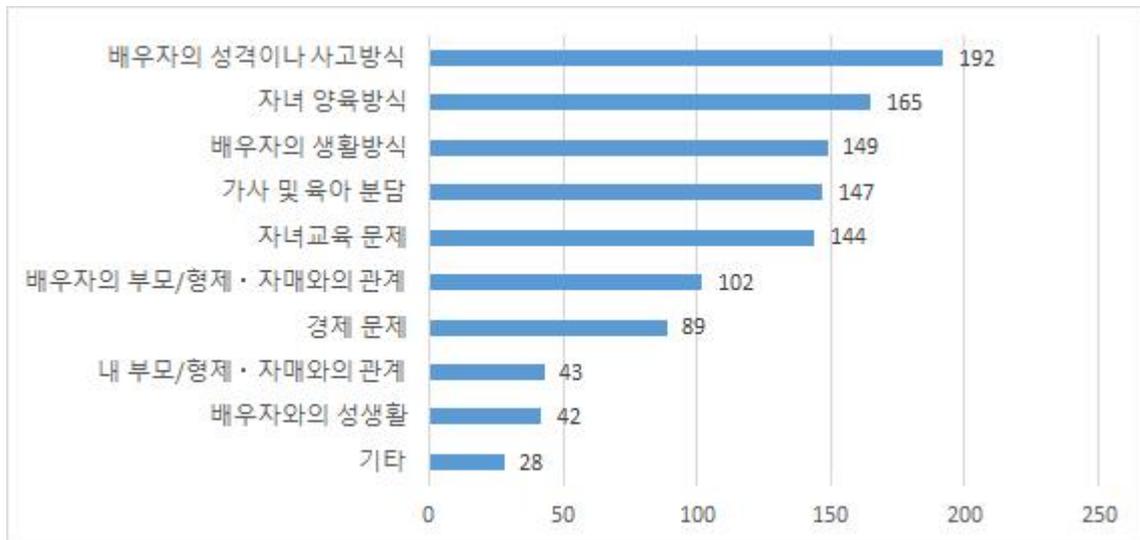


<그림 37>. 배우자와 의사소통 만족도

### (6) 배우자와 관계에서 불만족하는 영역

배우자와 주로 어떤 영역에서 불만족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17.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자녀 양육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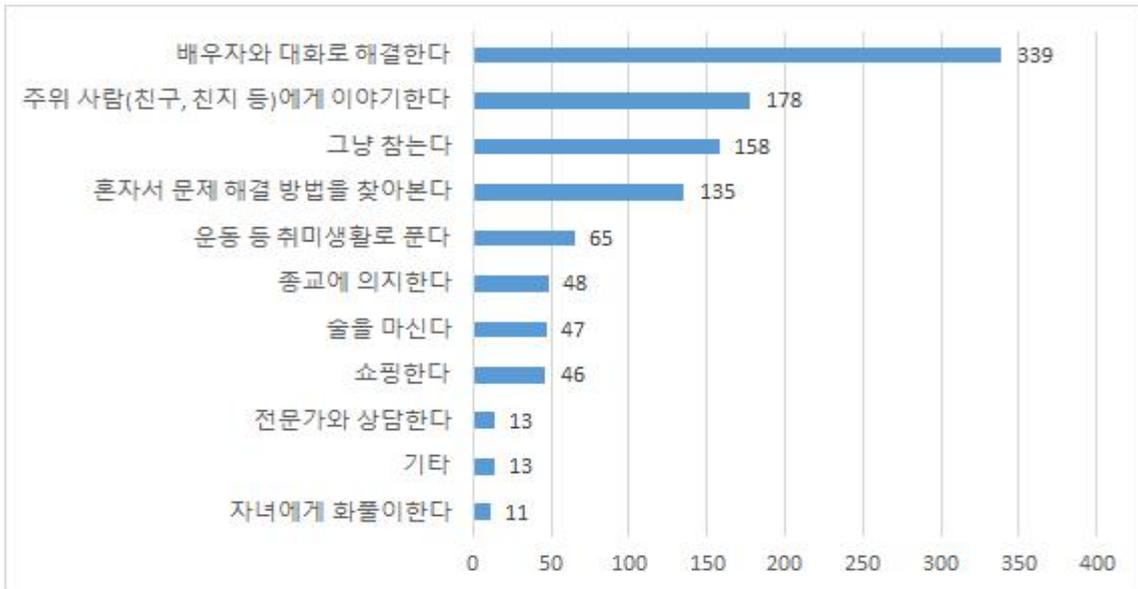
식'15.0%, '배우자의 생활방식'13.5%, '가사 및 육아분담'13.4%, '자녀교육 문제'13.1% 순이었다<그림 38>. 이는 여성가족부의 전국 단위조사(2015)에서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때문에 배우자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응답이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는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이 자신과 달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부성격이해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부부갈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그림 38>. 배우자와 관계에서 불만족하는 영역

### (7) 배우자와 갈등 해결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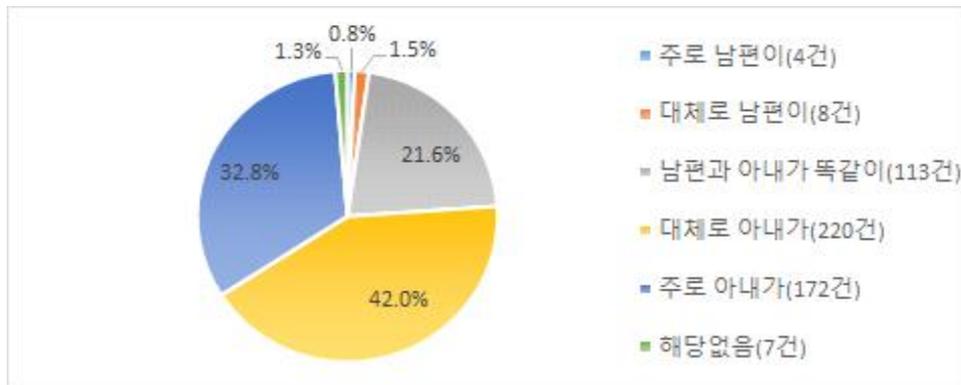
배우자와 갈등 해결방식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배우자와 대화로 해결한다'가 32.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주위사람(친구, 친지 등)에게 이야기한다'16.9%, '그냥 참는다'15.0%, '혼자서 문제해결방법을 찾아본다'12.8%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9>. 이는 여성가족부의 전국 단위조사(2015)에서 '그냥 참는다'는 응답이 45.9%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와 대화로 해결한다'가 28.7%로 조사된 것과 비교하면 동작구 학부모들이 배우자와 갈등해결 시 대화로 해결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9>. 배우자와 갈등 해결방식

#### (8) 부부간 자녀돌봄 분담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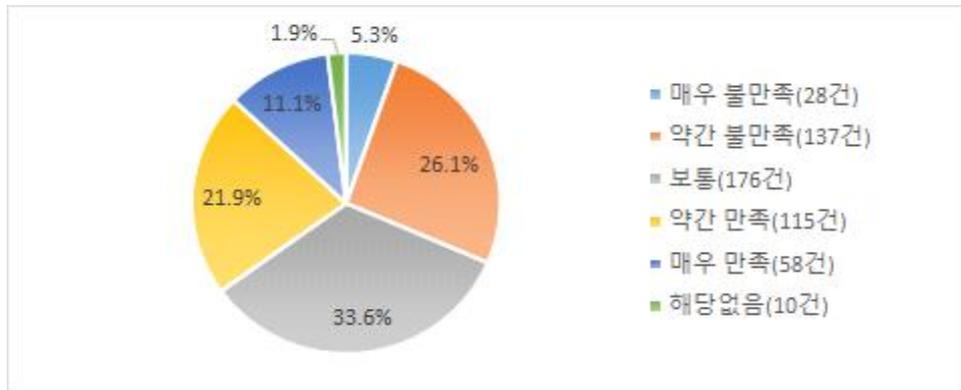
부부간 자녀돌봄 분담정도에 대한 문항에서는 ‘대체로 아내가’라는 응답이 전체의 42.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주로 아내가’라는 응답이 32.8%,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라는 응답이 21.6%으로 나타나 가정 내 자녀 돌봄에 대해 아내가 더 많이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0>. 그러나 전국단위로 실시 된 여성가족부(2015) 조사에서 ‘주로 아내가’, ‘대체로 아내가’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과 비교하여 남편의 참여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0>. 부부간 자녀돌봄 분담정도

### (9) 배우자와 자녀돌봄 분담방식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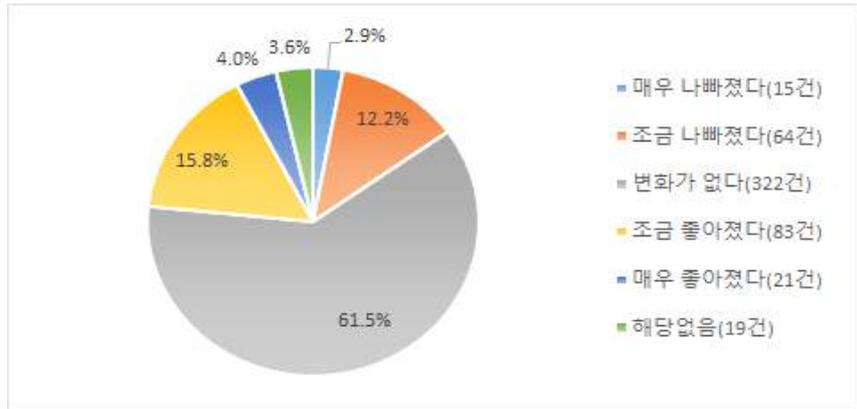
배우자와 자녀돌봄 분담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33.6%,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한다는 응답이 33.0%, ‘불만족(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31.4%로 나타났다<그림 41>. 따라서 자녀돌봄 분담방식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비율과 만족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1>. 배우자와 자녀돌봄 분담방식에 대한 만족도

### 2) 코로나19 이후 부부관계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배우자와의 관계변화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다. 또한 ‘나빠졌다(매우 나빠졌다+조금 나빠졌다)’는 응답 15.1%에 비하여 ‘좋아졌다(조금 좋아졌다+매우 좋아졌다)’는 응답이 19.8%의 비율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그림 42>. 이는 동작구 학부모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관계가 변화가 없거나 다소 개선된 경우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나빠진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장시간 노동이 한 축이었던 회식문화가 급감하고 직장인의 귀가시간이 빨라짐으로써 가족생활의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 동시에 가정 내 음주비율이 높아지고 서로 간의 요구나 간섭으로 인한 가족갈등이 증가하여 가족 내에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모두 일어날 수 있으며 대부분 가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더 좋아졌으나 관계가 악화된 가족도 있다는 진미정 등(202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림 42>. 코로나19 이후 부부관계 변화

# V. 교육경험 및 요구도 조사

## 1. 동작구 학부모의 부모교육 경험

### 1) 이전 부모교육 참여 여부

이전 부모교육 참여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들어보고 참여한 적이 있다’가 전체의 63.4%였고 ‘들어보았으나 참여한 적은 없다’는 전체의 33.2%로 나타났다. ‘들어본 적도 없고 참여한 적도 없다’는 응답의 경우 전체의 3.4%로 나타났다<그림 43>.



<그림 43>. 이전 부모교육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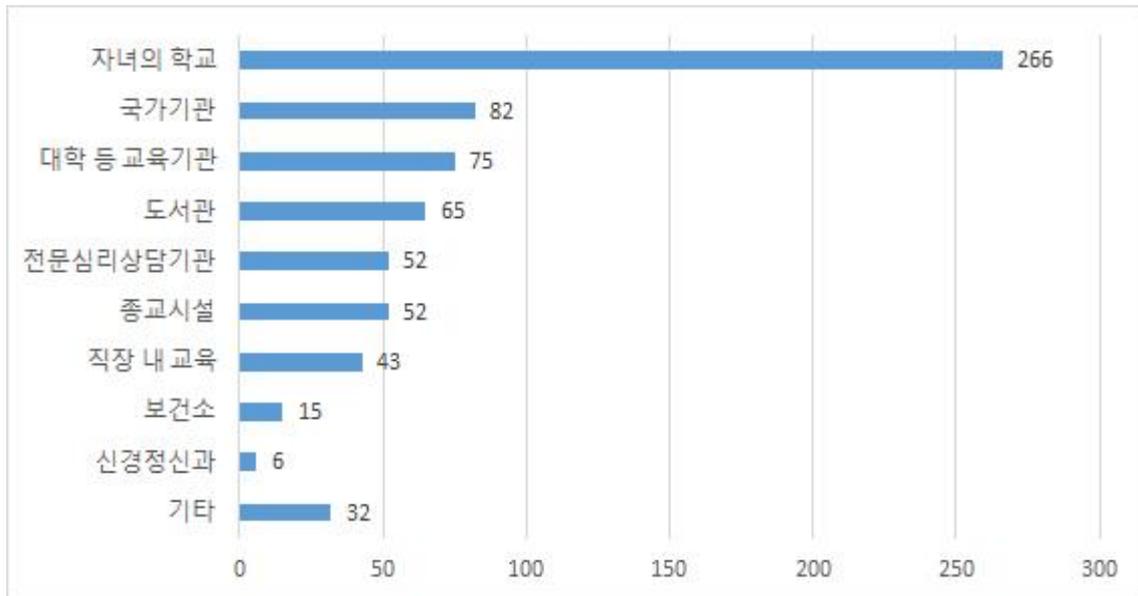
또한, 자녀가 속한 집단별로 부모의 이전 부모교육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들어보고 참여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미취학 48.5%, 초등 62.0%, 중·고등 78.0% 순으로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4>.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부모교육에 참여한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부모교육을 접할 기회가 점점 늘어났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4>. 이전 부모교육 집단별 참여 여부

## 2) 이전 부모교육 받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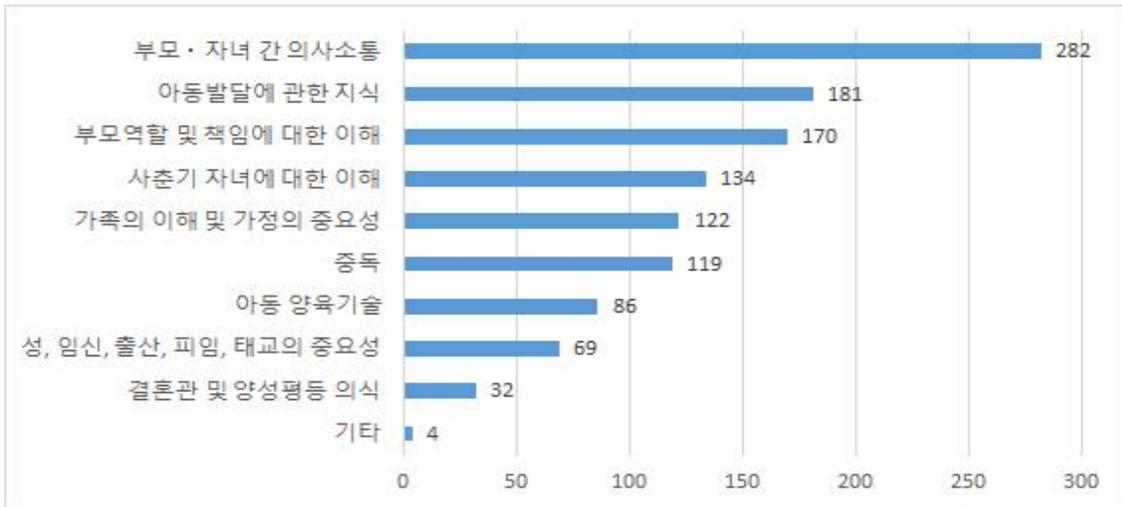
부모교육을 경험한 부모들 중에서, 이전에 부모교육을 받은 장소는 자녀의 학교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국가나 지자체 관련 기관(주민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독상담센터 등) 11.9%, 대학 등 교육기관 10.9%, 도서관 9.4%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5>.



<그림 45>. 이전에 받았던 부모교육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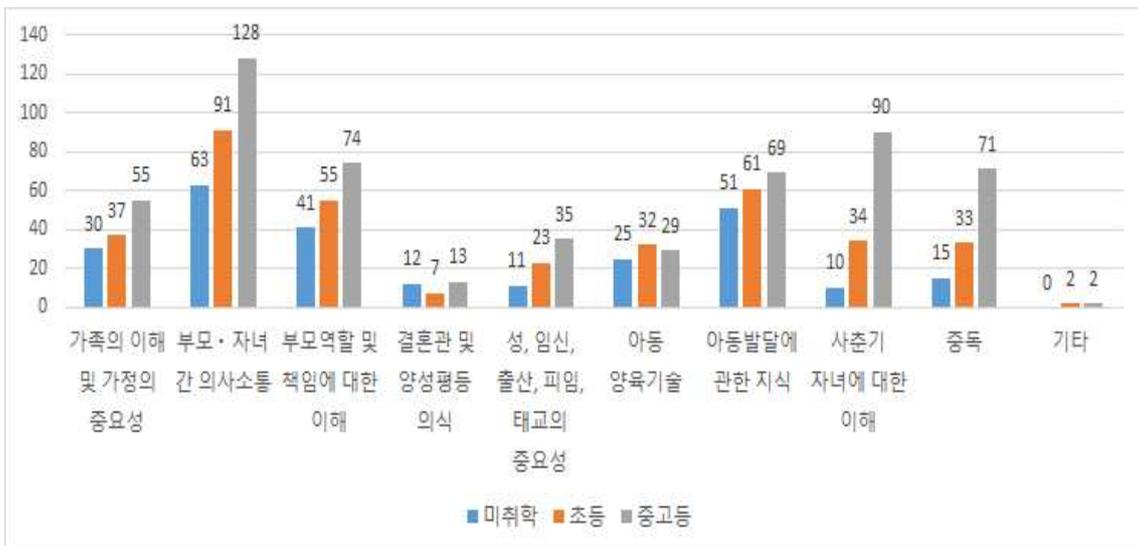
## 3) 이전에 받았던 부모교육의 내용

이전에 동작구 학부모들이 받았던 부모교육의 구체적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대한 부모교육으로 23.5%였다. 그 다음으로는 아동발달에 관한 지식 15.1%,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 14.2%, 사춘기 자녀에 대한 이해 11.2%, 가족의 이해 및 가정의 중요성 10.2%, 중독(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대한 이해 9.9%)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6>.



<그림 46>. 이전에 받았던 부모교육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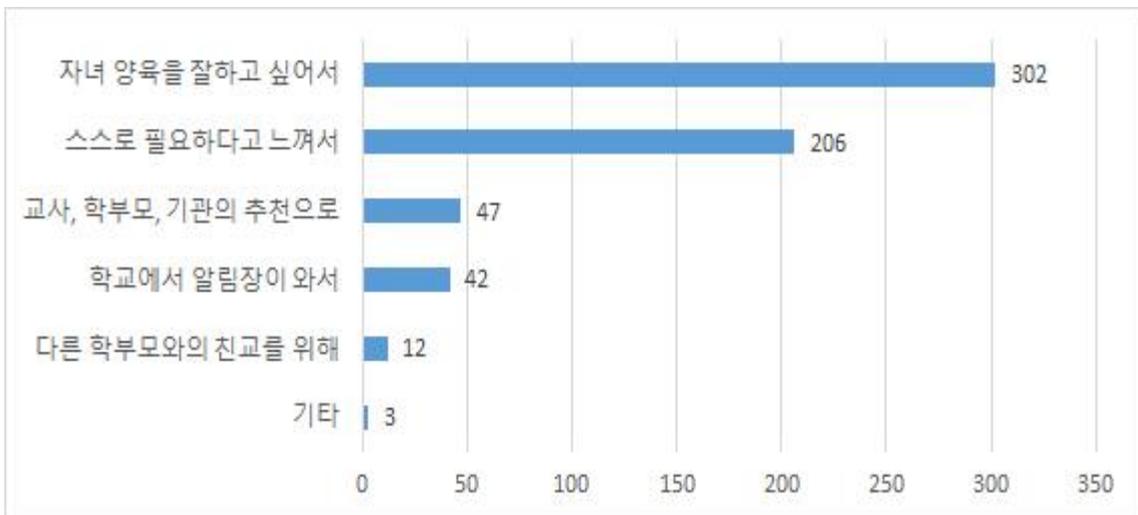
부모교육 내용을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19.0%), 아동발달에 관한 지식(15.4%),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12.3%) 순이었고, 초등학교 부모들의 경우에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27.4%), 아동발달에 관한 지식(18.4%),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16.6%)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부모의 경우에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38.6%), 사춘기 자녀에 대한 이해(27.1%),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22.3%), 중독(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대한 이해(21.4%)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7>.



<그림 47>. 이전에 받았던 부모교육 내용(발달단계별)

#### 4) 이전 부모교육 참여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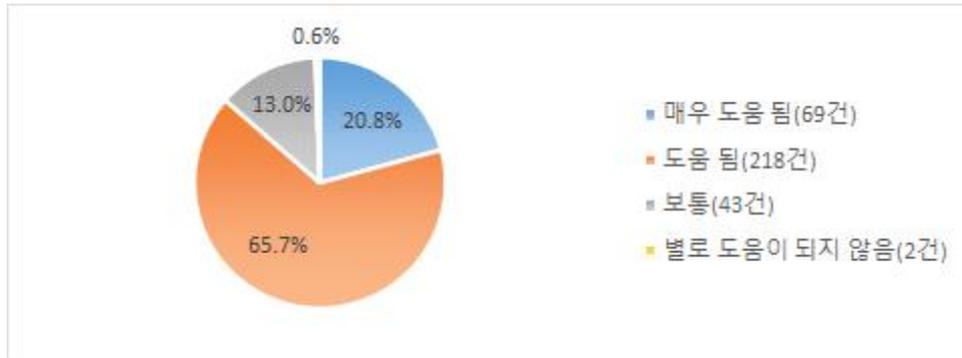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자녀 양육을 잘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49.3%(N=30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껴서’가 33.7%(N=206)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교사, 학부모, 기관의 추천으로(7.7%), 학교에서 알림장이 와서(6.9%)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8>. 부모들이 부모교육에 참여한 동기는 좋은 부모, 좋은 자녀양육에 대한 자발적 동기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주변에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때에 참여 동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8>. 이전 부모교육 참여 동기

#### 5) 이전 부모교육 도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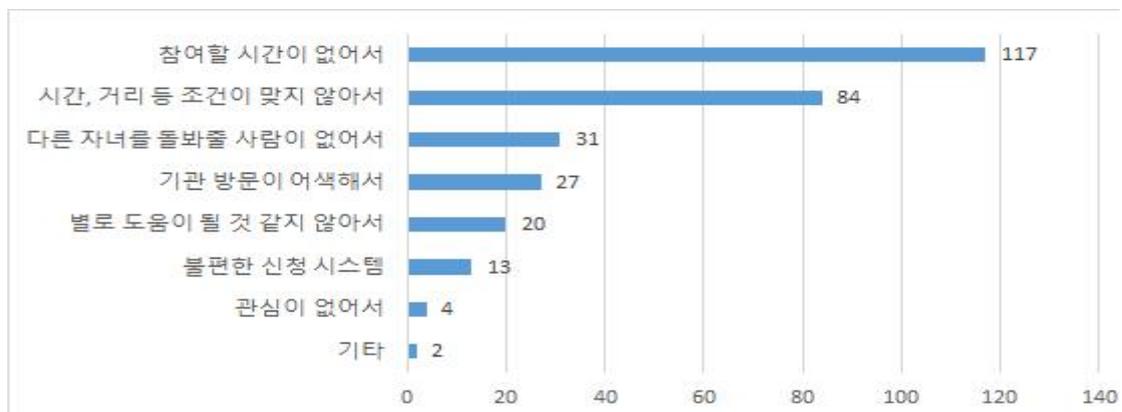
이전에 참여했던 부모교육에서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대하여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됨+도움됨)’가 전체의 86.5%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13.0%가 ‘보통이다’, 0.6%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전혀 도움안됨)’고 응답하였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전체 524명 중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9>. 이는 기존의 부모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부모교육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9>. 이전 부모교육 도움 여부

### 6) 이전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이전에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39.3%(N=11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시간, 거리 등 조건이 맞지 않아서’가 28.2%(N=84), ‘다른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기관 방문이 어색해서’가 각각 10.4%와 9.1%로 나타나 대부분 시간, 거리 등의 외부적 여건 때문에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0>. 또한, 새로운 장소와 경험을 시도하는 것이 어색한 것도 부모교육 참여의 방해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화상교육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있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면교육의 기회가 축소되고 화상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불편감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우 교육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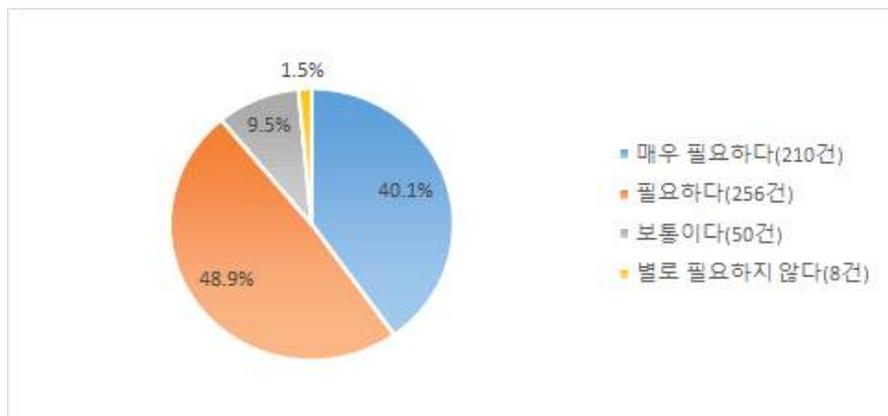


<그림 50>. 이전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 2. 동작구 학부모의 부모교육 요구도

### 1) 부모교육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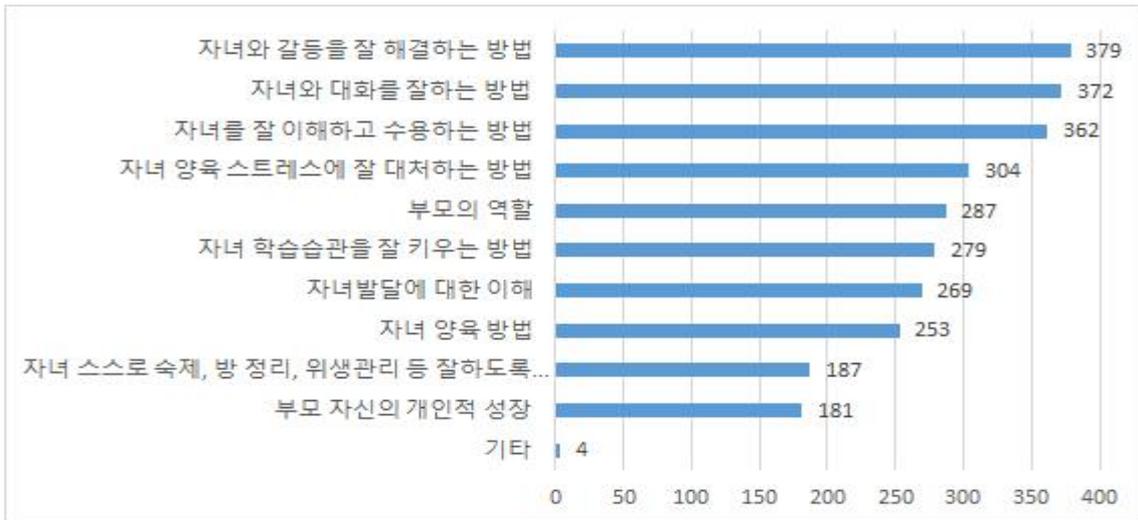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98.5% 부모들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0.1%였고,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8.9%. ‘보통이다’는 9.5%였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5%로 매우 적었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 524명 중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 응답자들은 부모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1>.



<그림 51>. 부모교육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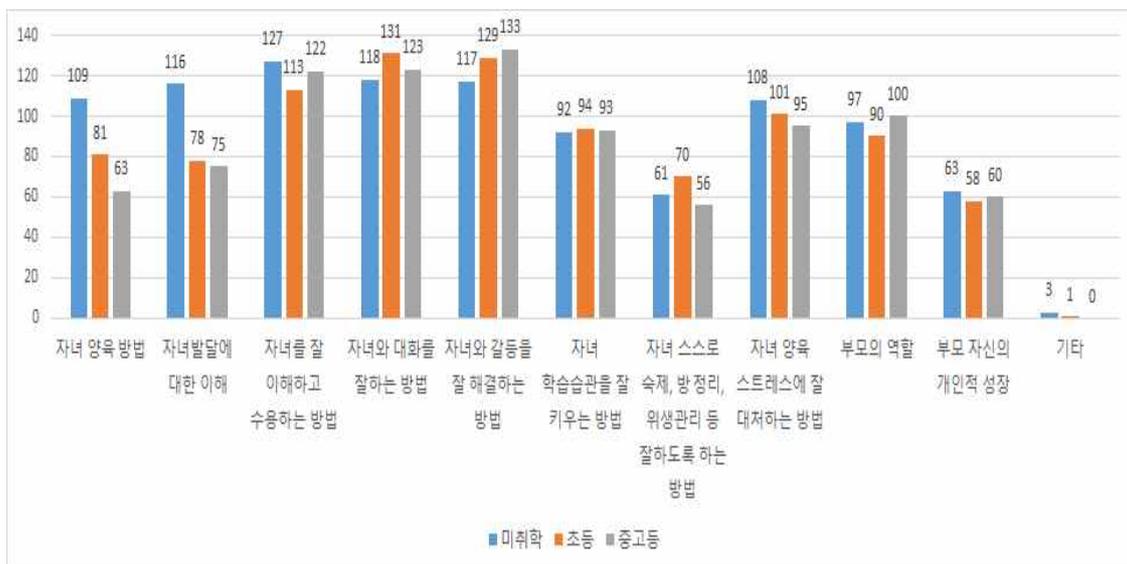
### 2) 향후 부모교육에서 받고 싶은 내용

향후 부모교육에서 받았으면 하는 내용으로는 자녀와 갈등을 잘 해결하는 방법 13.2%, 자녀와 대화를 잘하는 방법 12.9%, 자녀를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법 12.6%,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방법 10.6%, 부모역할 10.0%, 자녀 학습습관을 잘 키우는 방법 9.7%, 자녀발달에 대한 이해 9.4%, 자녀양육 방법 8.8%으로 고르게 나타났다<그림 52>.



<그림 52>. 향후 부모교육에서 받고 싶은 내용

발달단계에 따라 원하는 부모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법이 24.2%, 자녀와 대화를 잘하는 방법 22.5%, 자녀와 갈등을 잘 해결하는 방법 22.3%,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는 22.1%였다. 초등학교 부모는 자녀와 대화를 잘하는 방법 25.0%, 자녀와 갈등을 잘 해결하는 방법 24.6%, 자녀를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법이 21.6%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자녀와 갈등을 잘 해결하는 방법 25.6%, 자녀와 대화를 잘하는 방법 23.5%, 자녀를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법이 22.3%였다<그림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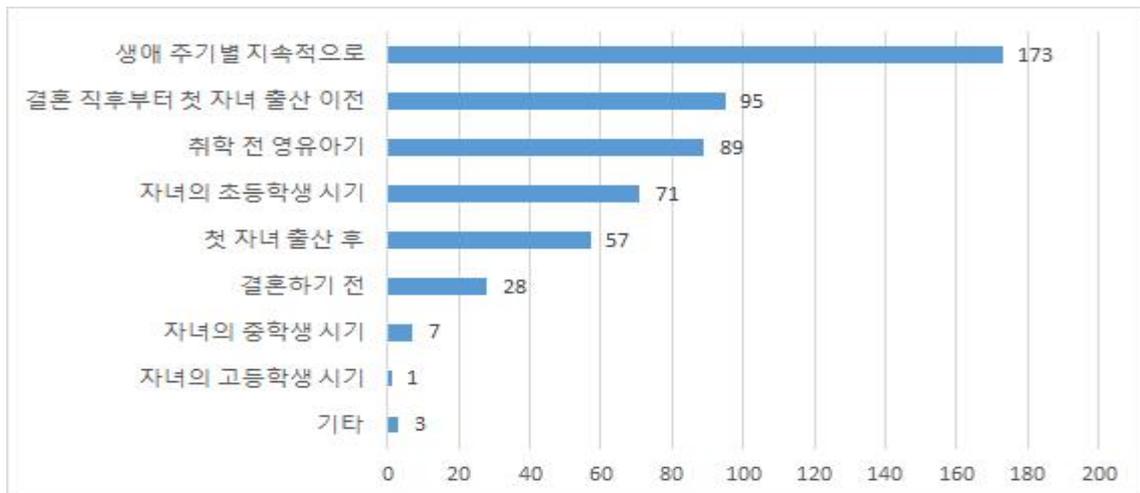


<그림 53>. 발달단계에 따라 원하는 부모교육 내용

이상으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발달과 자녀 양육을 포함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반면에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춘기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 3) 적절한 부모교육 시기

부모교육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는 ‘생애 주기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33.0%(N=1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혼 직후부터 첫 자녀 출산 이전(18.1%), 취학 전 영유아기(17.0%), 자녀의 초등학교 시기(13.5%), 첫 자녀 출산 후(10.9%)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교육이 일회성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우며 익혀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4>.



<그림 54>. 적절한 부모교육 시기

### 4)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모교육 형태

동작구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모교육의 형태를 묻는 문항에서는 ‘질의응답이 가능한 20~30명 정도 소규모 집단 교육’이 27.0%(N=26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21.5%로 높게 나왔고, ‘부모교육 내용을 배우고 함께 실행해보는 세미나 형태의 교육’이 21.3%, ‘가족단위의 실제적 교육과 상담’이 20.0%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강의를 원하는 비율은 9.5%로 매우 적었다. 즉, 대부분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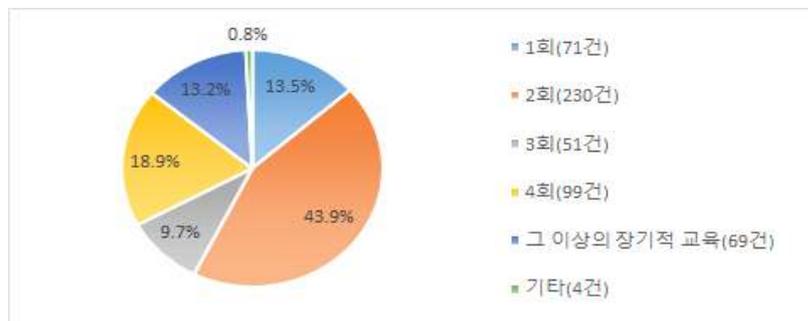
의와 상담이 가능한 소규모의 교육형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3.4%가 사전에 부모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으나 대부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강의방식에 대한 요구도가 떨어지고 보다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5>. 따라서 강의주제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강의방식을 선택하고 소규모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55>.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모교육 형태

### 5) 적절한 부모교육 횟수

적절한 부모교육의 횟수로 1년에 몇 회가 적당한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가장 많은 학부모들이 '2회(43.9%)'를 선택했다. 그 외에 4회(18.9%), 1회(13.5%), 그 이상의 장기적 교육(13.2%) 순을 적절한 횟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6>. 이는 기존의 일회성 부모교육이 갖는 한계에 대해 인식하고 최소 2회 이상의 연속적 부모교육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6>. 적절한 부모교육 횟수

## 6) 적절한 부모교육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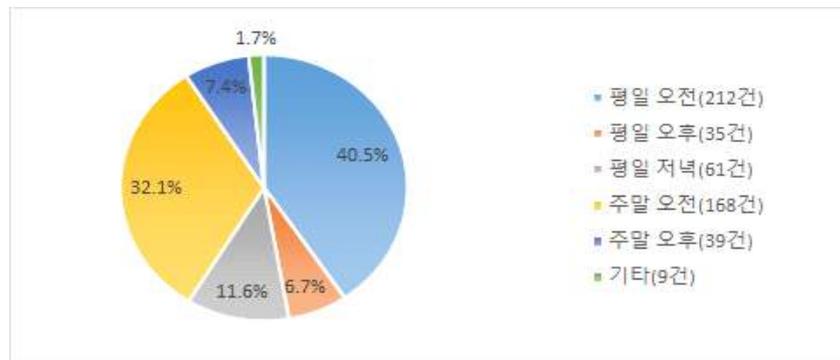
부모교육의 회당 시간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서는 ‘2시간’이 65.3%로 가장 많았고, 1시간(26.7%), 3시간(6.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그림 57>. 따라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는 높지만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일회에 2시간 이내에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57>. 적절한 부모교육 시간

## 7) 적절한 부모교육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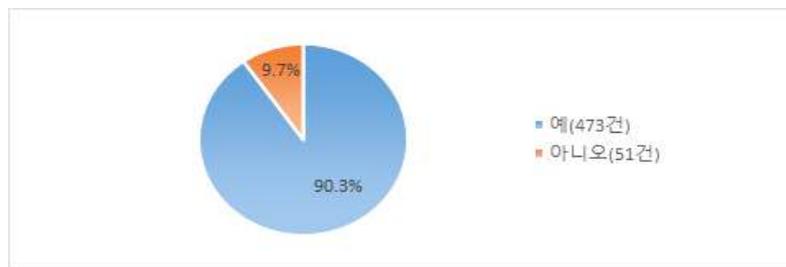
부모교육에 참여한다면 어느 시간대가 가장 적당한지 묻는 질문에서는 ‘평일 오전’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말 오전이 32.1%, 평일 저녁이 11.6%로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시간인 평일 오전과 주말 오전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8>.



<그림 58>. 적절한 부모교육 시간대

## 8) 공적인 무료교육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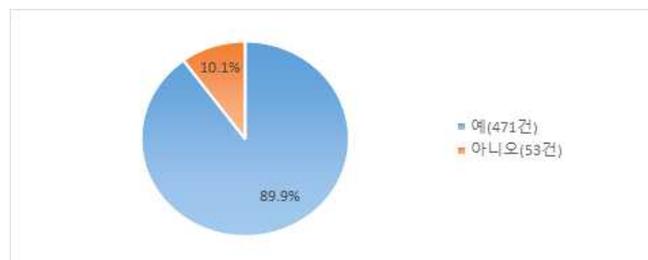
공적인 무료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전체의 90.3%가 ‘예’라고 응답했고 9.7%가 ‘아니오’라고 응답해 동작구 학부모들은 공적인 무료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가 가장 높은 필요성을 나타냈는데, 전체의 95.1%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4.9%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59>. 따라서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9>. 공적인 무료교육의 필요성

## 9) 동작구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부모교육에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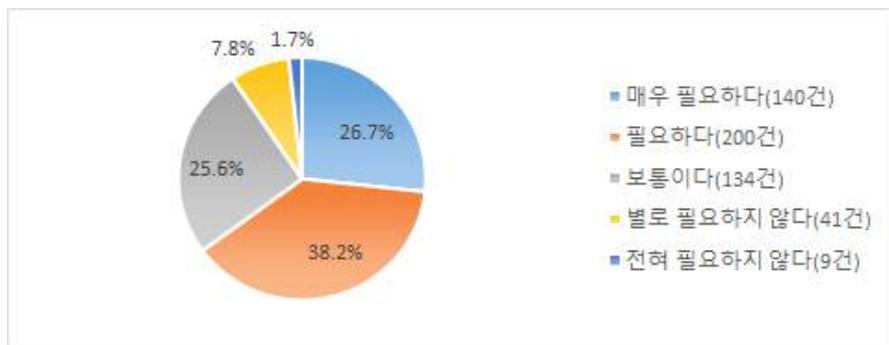
동작구에서 무료로 부모교육을 진행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의 89.9%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10.1%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전체의 93.9%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6.1%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여 대다수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부모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초등학교 학부모 88.3%, 중·고등학교 학부모 87.9% 부모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0>.



<그림 60>. 동작구 부모교육 참여 의향

## 10) 전문적인 심리상담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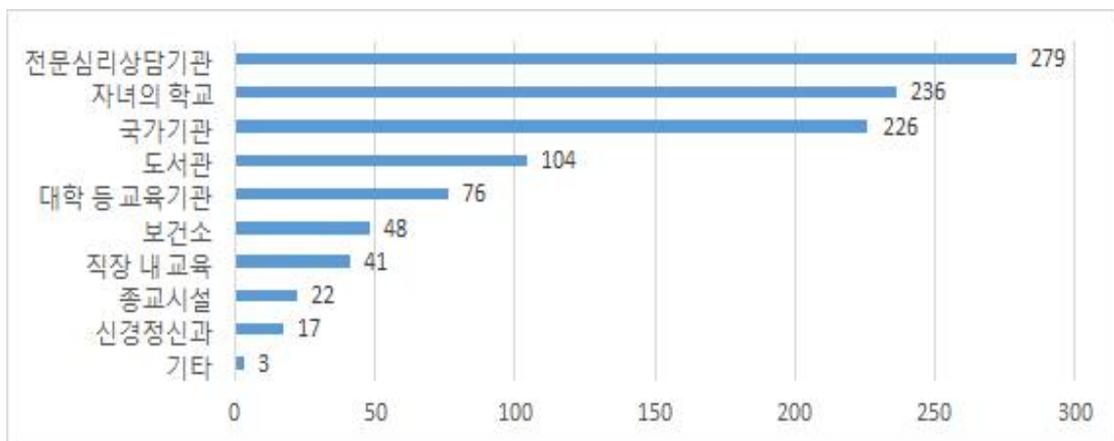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전문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필요하다)’가 전체의 64.9%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25.6%, ‘필요하지 않다(별로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의 경우 9.5%로 나타나 대부분의 부모(90.5%)들이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1>.



<그림 61>. 전문적인 심리상담 필요 여부

## 11) 원하는 부모교육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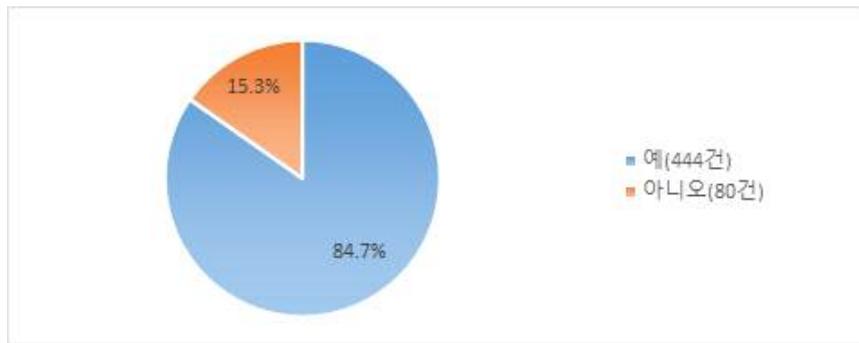
부모교육을 받을 경우 원하는 장소로는 전문심리상담기관이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학교가 22.4%, 국가나 지자체 관련기관(주민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독상담센터 등)이 21.5%로 나타났다<그림 62>.



<그림 62>. 원하는 부모교육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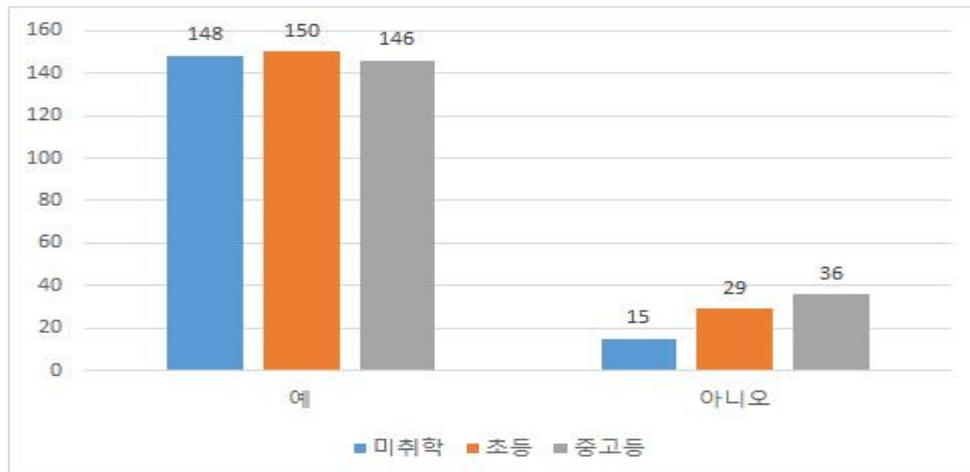
## 12) 무료 심리상담 참여 의향

동작구에서 무료로 자녀 관련 전문적 심리상담을 진행한다면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의 84.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5.3%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그림 63>.



<그림 63>. 무료심리상담 참여 의향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전체의 90.8%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9.2%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여 대다수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자녀 관련 심리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도 각각 83.8%와 80.2%로 부모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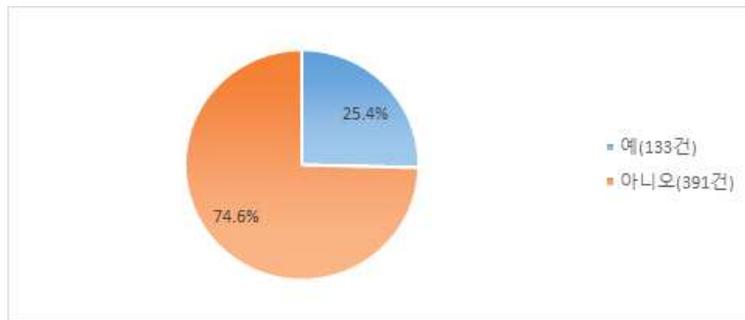


<그림 64>. 발달단계별 무료 심리상담 참여 의향

### 3. 동작구 학부모의 부부교육 경험

#### 1) 부부교육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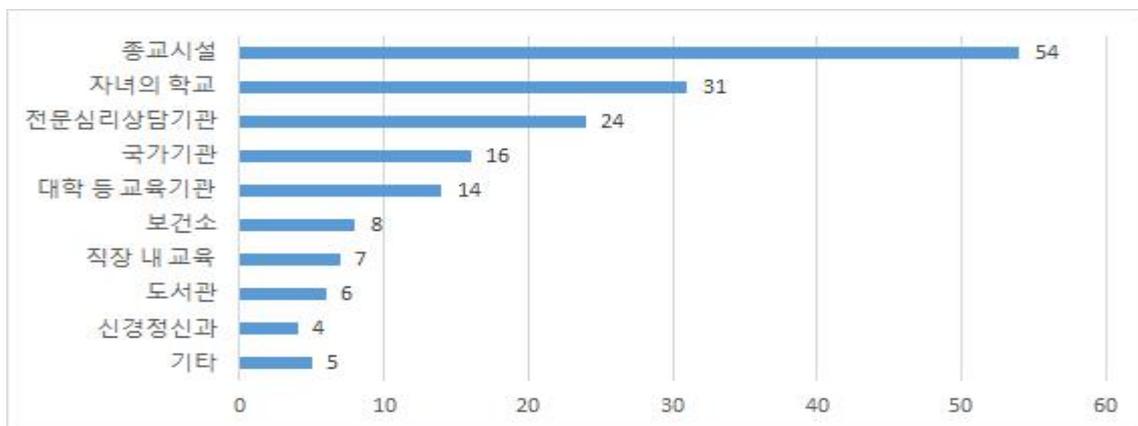
과거 부부교육 참여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25.4%가 ‘예’라고 응답했고, 74.6%이 ‘아니오’라고 응답해, 전체의 25.4%만이 부부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교육 경험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고, 많은 학부모들이 부부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5>.



<그림 65>. 부부교육 참여 여부

#### 2) 이전 부부교육 받은 장소

이전에 부부교육을 받은 장소로는 종교시설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의 학교 18.3%, 전문심리상담기관 1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교육이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실행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부부교육은 실행되는 경우가 적음을 알 수 있다<그림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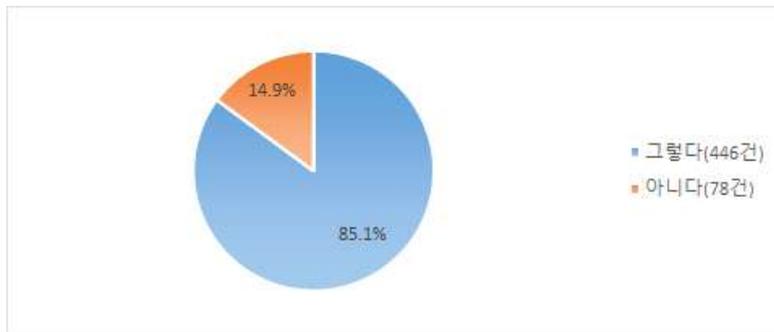


<그림 66>. 이전 부부교육 받은 장소

## 4. 동작구 학부모의 부부교육 요구도

### 1) 부부교육의 필요성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부부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그렇다’가 전체의 85.1%로 나타났고, ‘아니다’라는 응답은 14.9%로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 부부교육을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부부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동의하고 부부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7>.



<그림 67>. 부부교육의 필요성

### 2) 적절한 부부교육 시기

부부교육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는 ‘생애 주기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혼 직후부터 첫 자녀 출산 이전 26.3%, 결혼 전 22.9%, 첫 자녀 출산 후 11.8%, 자녀의 학령기 9.7%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68>. 부모교육과 마찬가지로 생애 주기별로 지속적인 부부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고 특히 결혼 전이나 자녀출산 전과 같이 부부생활의 초기, 즉 부모가 되기 전에 부부교육을 실행할 필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8>. 적절한 부부교육 시기

### 3) 요구하는 부부교육 내용

지금까지의 결혼생활을 바탕으로 어떠한 내용의 부부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으로는 ‘배우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법’ 21.7%, ‘자녀 양육 관련’ 20.3%, ‘부부의 역할’에 대한 내용 8.1%, ‘부부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 17.8%로 고르게 나타났다<그림 69>.



<그림 69>. 요구하는 부부교육 내용

### 4) 동작구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부모교육에 참여 의향

동작구에서 무료로 부부교육을 진행할 경우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의 65.3%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34.7%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전체의 74.8%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25.2%가 ‘아니오’라고 응답해 대다수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부부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부부교육의 경우에도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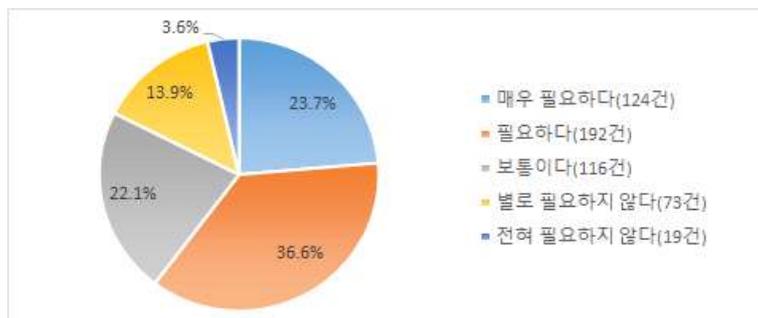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 각각 57.0%와 64.8%로 부모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0>.



<그림 70>. 동작구 부모교육 참여 의향

### 5) 부부상담의 필요성

부부의 관계개선을 위해 전문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 필요하다)’가 전체의 60.3%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22.1%, ‘필요하지 않다(별로 필요하지 않다 + 전혀 필요하지 않다)’의 경우 17.5%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다수의 응답자들이 배우자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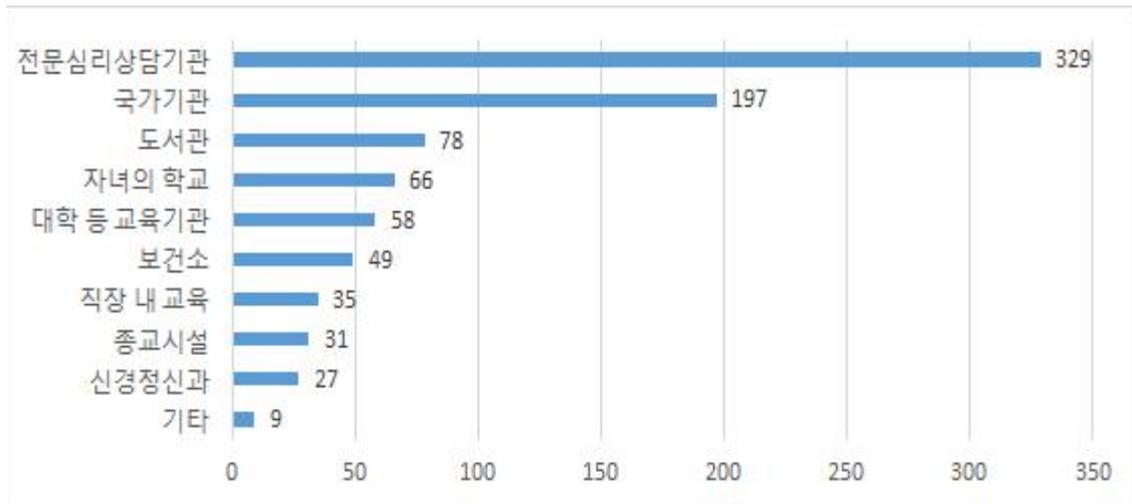


<그림 71>. 부부상담의 필요성

### 6) 원하는 부부상담 장소

부부상담을 받을 경우 원하는 장소로는 전문심리상담기관이 37.4%로 가장 많았고 국가나 지자체 관련 기관(주민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독상담센터 등)이 22.4%으로 나타나 전문상담기관 또는 국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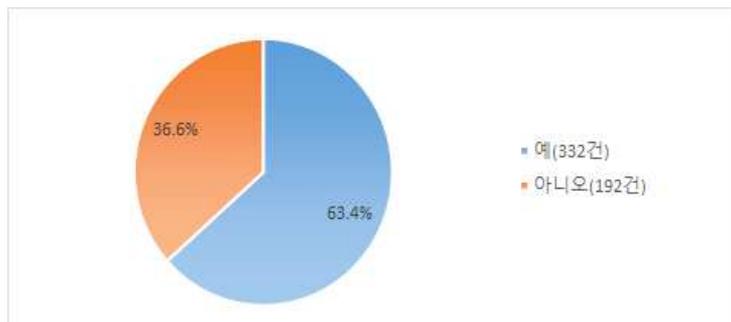
운영하는 전문상담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72>.



<그림 72>. 원하는 부부상담 장소

### 7) 무료 부부상담 참여 의향

동작구에서 무료로 부부관련 전문심리상담을 진행한다면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524명 중 63.4%가 ‘예’라고 응답했고, 36.6%가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다수의 응답자들이 부부상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73>.



<그림 73>. 무료 부부상담 참여 의향

## Ⅵ. 결론 및 향후 정책 제언점

### 1. 코로나19로 인하여 높아진 우울, 불안감, 걱정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처방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부 기업과 기관이 재택근무를 확대하였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학습이 확대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수입이 줄어들거나 직장을 잃는 등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스마트폰과 온라인 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모자녀간에 갈등이 증가하고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민의 96%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학습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 동작구 내 학부모들 개인의 정신건강은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우울감과 불안감 척도의 결과, 응답자들 전체의 우울수준과 불안수준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 정신건강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변화를 묻는 문항에서 이전에 비하여 전반적 우울감과 불안감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약 60%를 상회하여 전국평균에 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정서변화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정도도 전국평균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동작구 학부모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개인 정신건강의 부정적 변화를 매우 높게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동작구 학부모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험하는 불안과 걱정,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처전략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전국민적으로 코로나19의 위협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의 학부모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우울, 걱정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면 이에 대한 동작구의회 차원의 대안 마련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의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변화가 크거나 현실적 어려움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정서적인 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잠재적 위협을 크게 경험하고 불안과 걱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정서적 안정과 안심감을 가질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갖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하기 위하여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두려움의 근원인 잠재적인 위협을 보다 구체적으로 직면하여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단, 동작구에서 비대면(온라인, 전화, 화상 등)이나 일대일 대면으로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동작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사회 전문심리상담센터 등을 활용하거나 특별 심리상담전문가 대책팀(충신대, 중앙대, 숭실대 심리상담학과 교수 등 동작구 지역 내 대학에서 심리상담을 전공한 전문가 등)을 만들어서 3개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때 오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용가능한 동작구 내 공공도서관(8개, 부록 3참고)중 공간 사용가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후 활용하면 좋을 것인데, 이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경우의 장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주로 도서관 인근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 편리하게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3개 대학 학생들이나 지역주민 중 노인을 공공도서관에 지원하여 직장맘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모교육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자녀양육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심리상담접근 중에서 변화하기 어려운 현실을 수용하고 자신의 현실에 집중하여 전념할 수 있는 수용전념 심리치료의 접근을 활용하는 심리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이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이하 ACT)는 최근 우울 및 불안증상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적 접근으로 국내외에서 각광받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ACT에 기반을 둔 개입이 우울 및 불안증상을 개선하는 데 있어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다(김경희, 2016; 이은경, 송미경, 2018). 이경희(2017)는 수용전념치료가 심리적 수용을 강화하여 우울과 불안증상의 보호요인으로 회복력을 증진시킴을 입증하였고, 송지희(2019)는 ACT를 기반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그 효과를 검증한 결과, ACT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였고 부모효능감과 양육수용행동의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ACT를 기반으로 한 부모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학부모들의 우울과 불안, 코로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수준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부모효능감과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울, 불안, 걱정과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제공이 필요하다.

## 2. 부모교육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및 방법 마련

### - 동작구 부모교육 의무화 제도 입안 필요 -

본 연구의 결과, 동작구 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의 식사준비 증가와 개인적인 시간의 부족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학습관리와 생활관리 등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 등 부정적 정서가 증가되었고 자녀와의 관계와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응답도 20%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부모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에 대하여 평균정

도의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친밀감, 자녀 친구관계에 대한 지식, 자녀에 대한 믿음, 대화정도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어릴수록 긍정적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와의 다툼,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은 초등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중·고등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덜 간섭하고 자녀를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자녀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로서 당면하는 어려움이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역할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울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모들의 자녀양육 부담이 높아지고 24시간 동안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현실속에서 부모들 각각의 양육고충을 이해하고 필요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대면교육과 대면상담이 어려운 지금 온라인으로도 부모들이 가능한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모교육과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방법이나 동작구 내 유관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가족 각각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온라인이나 대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강사를 양성할 필요성도 있다.

특히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부모자녀관계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각 부모들이 요구한 발달단계(연령대별)와 부모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만큼 발달단계에 맞는 부모 역할과 어린자녀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자녀의 자율성 발달과 관련하여 부모가 통제와 허용의 범위를 조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발달 과제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모자

녀간 갈등을 해결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이다.’, ‘자녀와 자주 다툰다.’는 문항의 평균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부모 효능감은 가장 낮게 나타나 분노 조절이나 스트레스관리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청소년 자녀 이해하기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과 온라인게임 시간이 지나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자녀의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또한 필요하다. 이와같이 자녀의 연령대가 달라짐에 따라 반드시 알아야 할 발달적 특성, 자녀양육의 지식, 부모가 가져야 할 태도와 전략 등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지식을 습득하는 부모교육 콘텐츠를 마련하여 동작구 내의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에 앞서 먼저 적합한 부모역할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자녀와의 대화방법, 갈등해결과 같은 주제는 대단위 교육보다는 소그룹 혹은 일대일 장면에서 자신의 실제 사례를 꺼내어 논의하고 적합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의 개인적 성향과 부모의 성향, 각 가정의 처한 상황을 포괄하지 않고는 실효성 있는 갈등해결 및 대화방법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대규모 일방향의 강의보다는 자신의 부모자녀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소규모 워크숍이나 개별적 형태의 부모상담을 원하였다. 따라서 소규모 집단으로 개인의 사례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집중적인 심리상담을 통하여 부모들이 양육스트레스에 대하여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소규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작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육도 필요하다. 따라서 동작구 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부모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작구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적어도 결혼 직후나 임신하였을 때, 또는 출생신고 할 때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예를들면 동작구 주민이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 등을 안내하고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작구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부모교육 할 장소와 일정을 정하고 전문강사들을 위촉한 후, 출생신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고 동작구 내 유관 심리상담전문기관 혹은 3개 대학(총신대, 중앙대, 숭실대)과 공공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 3. 부부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교육 및 사회적 인식개선 필요

#### - 동작구 부부교육 의무화 제도 입안 필요 -

한국 가족은 제도적 가족의 성격이 강해서 관계에서도 존재적 의미, 친밀감이 강조되기보다 역할수행을 강조하는 도구적 의미가 강하다(Choi & Sung, 2011, 진미정 외, 2020에서 재인용).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친밀한 관계의 상호작용 경험이 많지 않은 부부가 개인공간과 가족공간, 사회적공간과 일 등의 공적공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시간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e et al., 진미정 외, 2020에서 재인용.)

특히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하여 자녀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가족 내 돌봄부담이 커지고 비대면 원격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녀 학습지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커지는 상황이 되었다. 부모의 역할 과중은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전통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노동과 돌봄을 더 많이 수행하는 가족 구조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가사와 돌봄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어머니를 중심으로 부모·자녀 하위체계가 구축되어 있던 가족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이후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도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큰 폭으로 경험할 것이다(진미정 외, 2020).

본 조사를 통하여 자녀 돌봄 분담정도에서 ‘주로 아내가+대체로 아내가’라는 응답이 전체의 74.9%를 차지했지만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라는 응답도 21.6%로 나타나 가족 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자녀 돌봄 분담방식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1.4%로 나타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불만족하는 영역에서 ‘가사 및 육아분담’이 13.4%를 차지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가사부담과 자녀 양육이 여성의 몫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원만해야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효율적인 양성평등적 교육, 즉 가정 내의 노동분담 등의 실제적 방법을 상의하고 상호존중을 통해 의사결정 해나가는 부부대화법 등의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정 내 가사 및 양육부담의 악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부가 함께 존중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캠페인을 제안하며 동작구에서 부부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교육을 받을 장소와 일정 등을 소개하고 반드시 부부교육을 받도록 안내하고 이 부부교육을 받았을 때 부수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4. 가족관계 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확산을 통해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생활의 긍정적 변화와 동시에 가족 간 갈등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 측면에서의 변화 또한 나타나고 있다(진미정 외, 2020). 이는 기존에 정서적 유대가 강했던 가족의 경우 가족 시간의 증가가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의 강화로 이

어졌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하지 않고 각자 개인화된 삶을 살았던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써 배우자나 자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Fegert et al., 진미정 외, 2020에서 재인용).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스마트폰과 온라인게임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모·자녀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 내 음주 비율이 높아지면서 부부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조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녀와의 관계와 배우자와의 관계가 변함없거나 좋아졌다는 응답을 한 대상자도 있었지만 나빠졌다는 비율도 20%정도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진미정 등(2020)의 연구에서도 대부분 가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더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도 높았지만 관계가 악화된 가족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현재 좋아졌거나 유지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고 악화된 가정의 경우 실질적인 개입과 지원 방안이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악화된 부모자녀 관계 및 부부관계의 개선을 원하는 경우 보다 손쉽게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동작구 내에는 다수의 전문심리상담기관이 존재하며 부모자녀/부부상담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동작구 의회 차원에서 동작구 내의 전문가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위기 부모자녀/부부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면 지역 내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보다 접근이 용이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부모/부부교육 및 상담을 원하고 있지만 거리와 시간, 비용 등 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공공차원에서 교육과 상담이 무상으로 제공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학부모들이 90%에 달할 만큼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차원에서 보다 접근하기 쉬운 부모/부부교육 및 상담서비스의 체계를 마련한다면 가장 실효성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동작구 내 유관 전문심리상담 센터 등 시설들의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하

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심리지원센터’를 동작구 내에 유치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동작구 의회에서 심리지원센터를 유치한다면 이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심리상담이나 부부, 부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 5. 동작구 지역주민 공동체 활용 방안

### - 서울시 지원 심리지원센터 유치 필요 -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심리상담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나 지속성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심리지원센터’를 유치하고 이 심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동작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교사와 학부모 지역주민들 중 부부교육이나 부모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을 전문가로 양성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역 공동체원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6. 향후 동작구 의회의 역할

1)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동작구 지역주민들의 우울, 불안, 걱정 및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대면 또는 대면 심리상담 실시를 위한 방안 마련

- (1) 지역구 내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관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도록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

- (2) 특별 심리상담전문가 대책팀(충신대, 중앙대, 숭실대 심리상담학과 교수 등 동작구 지역 내 대학에서 심리상담을 전공한 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3개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 이때 운영할 장소는 오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용가능 한 동작구 내 8개 도서관 중 공간사용가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후 활용. 이때 직장맘이나 지역주민들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 즉, 3개 대학 대학생이나 지역내 어르신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자녀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임
- (3) 동작구 내 정신과 병원들과 협력관계(MOU)를 체결하여 응급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 2) 서울시로부터 심리지원센터를 지원받기 위한 방안 마련

- (1) 서울시로부터 심리지원센터를 지원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이 심리지원센터를 받기 위한 적극 대처방안 마련 필요
- (2) 현재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심리지원센터는 3개 소임 (동남센터:송파구, 서남센터: 양천구, 동북센터:도봉구) 등

## 3) 부부 및 부모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진행

- (1) 지역사회 내 부부교육이나 부모교육이 가능한 유관기관의 현황(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전문인력 수 등)을 파악해야 함
- (2) 동작구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부부 및 부모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3) 개발된 부부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동작구 유관심리상담센터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진행하도록 함
- (4) 동작구 내 3개 대학(충신대, 중앙대, 숭실대)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진행 등

- (5) 동작구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방법 등과 개발된 부부 및 부모교육강사가 되기 위한 전문가과정을 진행해야 함
- (6) 동작구 내 지역주민,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부 및 부모 대중 강연, 소규모 워크샵 등 필요
- (7) 동작구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교사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부부 및 부모교육 전문가 양성, 이후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4) 동작구 지역주민이 부부 및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동작구 지역주민들이 부부 및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음

#### 5) 외부 연구용역 필요

위에서 제시한 1), 2), 3), 4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외부 연구용역이 필요함

## 부 록

### 1. 연구설명문 및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우리 연구팀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된 학부모들의 마음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복한 결혼생활과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동작구 학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충을 알아보고 이후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신 자료는 동작구 학부모들의 마음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이외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소 긴 설문이지만,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 실시 도중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하실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 설문은 20~25분 정도 소요되며, 모든 문항에 끝까지 응답하신 분들께는 감사의 표시로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 이용권을 보내드릴 것이며, 여러분의 귀한 자료는 향후 동작구 주민들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조사수행기관 :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조현섭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한영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상담학과 교수)  
원성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연구참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후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보의 삭제·처리 정지 요구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개인정보처리자) :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나. 개인정보 수집 목적 : 동작구 학부모들의 마음실태조사

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 개인정보(성명 등 인적사항, 연구에 관련된 항목 및 기타)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

### 2. 본인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관해 세부설명을 이해했으며 자발적 참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설문을 끝까지 완료하신 분께 답례품으로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 이용권"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답례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시는 경우, 답례품을 받으실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_\_\_\_\_

## 2. 설문지

Q1. 귀하께서는 최근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느끼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2	자녀에게 간섭을 하는 편이다.	1	2	3	4	5
3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	2	3	4	5
4	자녀와 자주 다툰다.	1	2	3	4	5
5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이다.	1	2	3	4	5
6	내 자녀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다.	1	2	3	4	5
7	내 자녀를 믿는다.	1	2	3	4	5
8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	1	2	3	4	5

Q2. 귀하께서는 평소 부모로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서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자녀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부모역할을 보여주는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4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1	2	3	4	5
5	자녀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1	2	3	4	5
6	부모로서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	1	2	3	4	5
7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시도한다.	1	2	3	4	5
8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1	2	3	4	5
9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Q3. 다음은 ‘부모교육’ 경험과 의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난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는 지금까지 부모교육에 대해 들어보거나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들어보고 참여한 적이 있다. (다음 2번 질문으로 내려가 주십시오).
- ② 들어보았으나 참여한 적은 없다. (다음 3번으로 내려가 주십시오).
- ③ 들어본 적도 없고 참여한 적도 없다. (다음 4번으로 내려가 주십시오)

2. 부모교육은 어디에서 받으셨는지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 ② 대학 등 교육기관
- ③ 전문심리상담기관
- ④ 종교시설
- ⑤ 직장 내 교육
- ⑥ 신경정신과(병원)
- ⑦ 보건소
- ⑧ 국가나 지자체 관련 기관(주민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독상담센터 등)
- ⑨ 도서관
- ⑩ 기타( )

2-1. 부모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가족의 이해 및 가정의 중요성
- ②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 ③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
- ④ 결혼관 및 양성평등 의식
- ⑤ 성, 임신, 출산, 피임, 태교의 중요성
- ⑥ 아동 양육기술(수유, 영양 및 건강관리)
- ⑦ 아동발달(인지, 언어, 정서, 성격, 사회성 등)에 관한 지식
- ⑧ 사춘기 자녀에 대한 이해
- ⑨ 중독(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대한 이해
- ⑩ 기타( )

2-2.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자녀 양육을 잘하고 싶어서
- ② 다른 학부모와의 친교를 위해
- ③ 교사, 학부모, 기관의 추천으로
- ④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껴서
- ⑤ 학교에서 알림장이 와서
- ⑥기타( )

2-3. 부모교육에서 얼마나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 ① 매우 도움 됨
- ② 도움 됨
- ③ 보통
-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 ⑤ 전혀 도움 안 됨

3.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②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 ③ 관심이 없어서
- ④ 시간, 거리 등 조건이 맞지 않아서
- ⑤ 다른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 ⑥ 불편한 신청 시스템
- ⑦ 기관 방문이 어색해서
- ⑧ 기타( )

4. 귀하께서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4-1. 부모교육의 내용으로 적당한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자녀 양육 방법
- ② 자녀발달에 대한 이해
- ③ 자녀를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법
- ④ 자녀와 대화를 잘하는 방법
- ⑤ 자녀와 갈등을 잘 해결하는 방법
- ⑥ 자녀 학습습관을 잘 키우는 방법
- ⑦ 자녀 스스로 숙제, 방 정리, 위생관리 등 잘하도록 하는 방법
- ⑧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방법
- ⑨ 부모의 역할
- ⑩ 부모 자신의 개인적 성장
- ⑪ 기타( )

4-2. 부모교육은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결혼하기 전
- ② 결혼 직후부터 첫 자녀 출산 이전
- ③ 첫 자녀 출산 후
- ④ 취학 전 영유아기
- ⑤ 자녀의 초등학생 시기
- ⑥ 자녀의 중학생 시기
- ⑦ 자녀의 고등학생 시기
- ⑧ 생애 주기별 지속적으로
- ⑨ 기타( )

4-3. 어떤 형태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부모교육 전문가의 대규모 강의
- ② 질의응답이 가능한 20-30명 정도 소규모 집단 교육

- ③ 부모교육 내용을 배우고 함께 실행해보는 세미나 형태의 교육
- ④ 가족 단위의 실제적 교육과 상담
- ⑤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 상담 프로그램
- ⑥ 기타( )

4-4. 부모교육의 횟수는 1년에 몇 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그 이상의 장기적 교육    ⑥ 기타( )

4-5. 한 번 부모교육을 받을 경우, 몇 시간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시간    ② 2시간    ③ 3시간    ④ 4시간    ⑤ 기타( )

4-6. 귀하가 부모교육에 참여하신다면 언제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평일 오전
- ② 평일 오후
- ③ 평일 저녁
- ④ 주말 오전
- ⑤ 주말 오후
- ⑥ 기타( )

4-7. 귀하께서는 공식적인 무료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4-8. 만약, 동작구에서 무료로 부모교육을 진행한다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5.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전문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5-1. 어떤 장소에서 자녀 관련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지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 ② 대학 등 교육기관
- ③ 전문심리상담기관
- ④ 직장 내 교육
- ⑤ 보건소
- ⑥ 도서관
- ⑦ 국가나 지자체 관련 기관(주민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독상담센터 등)
- ⑧ 종교시설
- ⑨ 신경정신과(병원)
- ⑩ 기타( )

5-2. 만약, 동작구에서 무료로 자녀 관련 전문적 심리상담을 진행한다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Q4. 다음은 ‘부부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평소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1. 부부간 대화 형태는 주로 어떻습니까?

- ① 남편이 주로 이야기하고, 아내가 듣는다.
- ② 아내가 주로 이야기하고, 남편이 듣는다.
- ③ 둘 다 서로 이야기를 잘한다.
- ④ 둘 다 서로 이야기를 별로 안 한다.
- ⑤ 해당없음

2. 가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로 누가 합니까?

- ① 주로 남편이    ② 대체로 남편이    ③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④ 대체로 아내가
- ⑤ 주로 아내가    ⑥ 해당없음

3. 배우자와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30분 미만    ③ 30분-1시간 미만    ④ 1시간-2시간 미만
- ⑤ 2시간 이상    ⑥ 해당없음

4. 배우자와 대화 시간은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 ① 매우 충분    ② 충분    ③ 보통    ④ 부족    ⑤ 매우 부족    ⑥ 해당없음

5. 배우자와 의사소통은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 ⑥ 해당없음

6. 배우자와 주로 어떤 영역에서 불만족 하는지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내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 ②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 ③ 배우자의 생활방식
- ④ 자녀교육 문제
- ⑤ 자녀 양육방식
- ⑥ 경제 문제
- ⑦ 가사 및 육아 분담
- ⑧ 배우자와의 성생활
- ⑨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 ⑩ 기타(                    )

7. 배우자와 갈등 해결 방식은 주로 어떤지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그냥 참는다.
- ② 혼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본다.
- ③ 배우자와 대화로 해결한다.
- ④ 쇼핑한다.
- ⑤ 운동 등 취미생활로 푼다.
- ⑥ 술을 마신다.
- ⑦ 자녀에게 화풀이한다.
- ⑧ 주위 사람(친구, 친지 등)에게 이야기한다.
- ⑨ 전문가와 상담한다.
- ⑩ 종교에 의지한다.
- ⑪ 기타(                    )

8. 배우자와 자녀 돌봄 분담 정도는 어떻습니까?

- ① 주로 남편이            ② 대체로 남편이            ③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 ④ 대체로 아내가            ⑤ 주로 아내가            ⑥ 해당 없음

9. 배우자와 자녀 돌봄 분담방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⑥ 해당없음

10.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귀하의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① 매우 나빠졌다.            ② 조금 나빠졌다.            ③ 변화가 없다.
- ④ 조금 좋아졌다.            ⑤ 매우 좋아졌다.            ⑥ 해당없음

**Q5. 다음은 ‘부부교육’의 경험과 의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난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이전에 부부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1-1번으로 가세요)
- ② 아니오(2번으로 가세요)

1-1. 부부교육은 어디에서 받으셨는지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 ② 대학 등 교육기관
- ③ 전문심리상담기관
- ④ 직장 내 교육
- ⑤ 보건소
- ⑥ 도서관
- ⑦ 국가나 지자체 관련 기관(주민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독상담센터 등)
- ⑧ 종교시설

- ⑨ 신경정신과(병원)
- ⑩ 기타( )

2. 귀하께서는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부부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2-1. 부부교육은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결혼 전
- ② 결혼 직후부터 첫 자녀 출산 이전
- ③ 첫 자녀 출산 후
- ④ 자녀의 학령기
- ⑤ 생애 주기별 지속적으로
- ⑥ 기타( )

2-2. 귀하의 지금까지의 결혼생활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의 부부교육이 필요한지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결혼의 의미와 가치 ② 부부의 역할 ③ 자녀 양육 관련 ④ 경제관리 ⑤ 의사소통
- ⑥ 배우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법 ⑦ 양가 집안 관련 ⑧ 기타( )

2-3. 만약, 동작구에서 무료로 부부교육을 진행한다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 부부의 관계개선을 위해 전문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3-1. 어떤 장소에서 부부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지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 ② 대학 등 교육기관
- ③ 전문심리상담기관
- ④ 직장 내 교육
- ⑤ 보건소
- ⑥ 도서관
- ⑦ 국가나 지자체 관련 기관(주민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독상담센터 등)
- ⑧ 종교시설
- ⑨ 신경정신과(병원)
- ⑩ 기타( )

3-2. 만약, 동작구에서 무료로 부부 관련 전문심리상담을 진행한다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Q6. 귀하께서는 지난 2주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없다	며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2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잔다.	①	②	③	④
4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5	식욕이 줄었다. 혹은 너무 많이 먹는다.	①	②	③	④
6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8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다. 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9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어떻게든 자해를 하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0.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귀하의 전반적 우울감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① 매우 줄었다
- ② 조금 줄었다
- ③ 변화가 없다
- ④ 조금 늘었다
- ⑤ 매우 늘었다

Q7. 귀하께서는 지난 2주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없다	며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하다.	①	②	③	④
2	걱정하는 것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3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4	편하게 있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5	너무 안절부절못해서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6	쉽게 짜증이 나거나 쉽게 화를 내게 된다.	①	②	③	④
7	마치 끔찍한 일이 생길 것처럼 두렵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8.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귀하의 전반적 **불안감**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① 매우 줄었다    ② 조금 줄었다    ③ 변화가 없다    ④ 조금 늘었다    ⑤ 매우 늘었다

Q8. 귀하께서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떻게 느끼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두렵다.	1	2	3	4	5
2	내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두렵다.	1	2	3	4	5
3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가족 혹은 다른 사람에게 옮길까봐 두렵다.	1	2	3	4	5
4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직장 혹은 학교 폐쇄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두렵다.	1	2	3	4	5
5	나와 가족이 감염되면, 치료를 위해 격리될까 봐 두렵다.	1	2	3	4	5
6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확진자로 낙인찍히는 것이 두렵다.	1	2	3	4	5
7	내가 사는 지역사회가 코로나19 지역이라고 낙인찍히는 것이 두렵다.	1	2	3	4	5





### 3. 동작구 유관기관 목록

<표 1>.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기관명	연락처	주소
어 린 이 집	구립가온어린이집	02-3280-02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가길 16
	구립강남어린이집	02-814-7615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12길 5-12
	구립강마루어린이집	02-814-3200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52 흑석아 크로리버하임 아파트
	구립고은어린이집	02-834-1097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길 42-10
	구립꿈나무어린이집	02-821-5615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11
	구립꿈담어린이집	02-813-4246	서울시 동작구상도로47아길 44-1 2층
	구립꿈마루어린이집	02-6277-6990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52 흑석아 크로리버하임 아파트 관리동
	구립나래어린이집	02-823-34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라길 24 나래어린이집
	구립노량진2동 어린이집	02-821-4756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5길 21
	구립노량진어린이집	02-822-7373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14길 44 노량진동 84-33
	구립노블어린이집	02-812-0668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6 e편한세 상상도노빌리티 관리동
	구립다움어린이집	02-582-299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90 사당롯데 캐슬골든포레 관리동 1층
	구립대방보듬이나눔어 린이집	02-822-1257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15길 10
	구립도담어린이집	02-831-5041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59 보라매파크빌아파트 104동 102호
	구립도레미어린이집	02-813-2031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13길 25
	구립동지어린이집	02-597-09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4길 20 동 지어린이집(사당동)
	구립라온어린이집	02-522-5298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7길 28
	구립로미어린이집	02-3280-3535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19
구립로야어린이집	02-822-2246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62길 87	

구립로이어린이집	02-535-527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3길 112
구립롯데키즈 어린이집	02-847-5333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38 보라매롯데낙천대아파트 관리동1층
구립리가어린이집	02-536-1292	서울 동작구 사당로27길 130 105동 키즈클럽(사당동, 이수역 리가아파트)
구립문화어린이집	02-534-017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3길 24
구립바르니어린이집	02-582-470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7길 52 대 림아파트 3-106
구립백로어린이집	02-816-1031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9라길 51
구립백합어린이집	02-596-9117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9 110동 105호 (사당동, 극동아파트)
구립보라매어린이집	02-826-4503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길 44
구립비둘기어린이집	02-817-2903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47
구립사당4동어린이집	02-581-00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2나길 70
구립사당빛나 어린이집	02-845-6545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8
구립사당어린이집	02-533-715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7길 190
구립상도3동어린이집	02-825-9153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6가길 5
구립상도4동어린이집	02-3280-1145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22길 45 구 립상도4동어린이집
구립상도어린이집	02-825-0505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36길 15 (
구립새봄어린이집	010246727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9길 11-13
구립새빛어린이집	02-827-0791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1가길 11
구립새싹어린이집	02-537-4216	서울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9 극동아파 트111동 뒤
구립셋별어린이집	02-823-2482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27길 12
구립선재어린이집	02-815-027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32길 62
구립성대어린이집	02-826-9003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0길 27
구립세움어린이집	02-826-5656	서울동작구 등용로24-5 세움교회 1층
구립스마일어린이집	02-813-26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1길 42

구립신대방1동 어린이집	02-849-4533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길 44
구립아기둥지어린이집	02-887-7796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421 108동 108호 (관악현대아파트)
구립아람어린이집	02-822-86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0길 40 두 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203동 204호
구립아리아어린이집	02-836-9300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1 102호
구립양지어린이집	02-533-925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3가길 23 9 구립양지어린이집 (사당동)
구립연꽃어린이집	02-823-320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1길 235-1
구립열린어린이집	02-594-815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91
구립예담어린이집	02-815-6893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43 예담어 린이집(상도1동 511)
구립우리어린이집	02-584-7684	서울특별시 동작구 솔밭로 74-1 구립 우리어린이집(사당동)
구립은솔어린이집	0102387610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46-1
구립은하어린이집	02-821-0421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아길 77
구립이솔어린이집	02-815-0492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23
구립이수어린이집	02-591-763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35길 36 이수어린이집(사당동)
구립장미어린이집	02-596-111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5
구립참사랑어린이집	02-582-207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7길 37
구립큰나무어린이집	02-585-07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가길 219
구립큰별어린이집	02-827-0082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 한강로 28 구 립큰별어린이집 (흑석동 336-1번지)
구립키움어린이집	02-2135-6663	서울동작구 매봉로 123 104동 101호
구립키즈사랑어린이집	02-3280-0377	서울 동작구 알마타길 37 관리동 1층
구립탑키즈어린이집	02-825-586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17-1
구립태성어린이집	02-832-7799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1
구립푸른솔어린이집	02-822-3383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2길 23 청 송경로당 1층
구립한빛어린이집	02-826-8080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0길 40 두

		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202동 1층
	구립한울어린이집	02-821-4645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9다길 15
	구립해오름어린이집	02-888-8646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421 관악현대아파트 108동 103호
	구립해와별어린이집	02-817-4972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8길 50
	구립흑석어린이집	02-813-9598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61
유치원	강남유치원	02-813-71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41가 13길
	노량진교회유치원	02-817-3875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30길 9
	동그라미유치원	02-587-5599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8길 34
	메이플유치원	02-845-727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
	명수유치원	02-816-296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13길 3
	벤엘유치원	02-814-1482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20길 46-3
	사랑유치원	02-822-010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4나길 6
	상도유치원	02-815-33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47길 51
	상아유치원	02-822-6901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6길 15
	셋별유치원	02-3280-8993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50길 36-1
	서울강남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02-824-4471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5
	서울남성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02-595-5471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3길 57-14
	서울노량진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02-815-127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0
	서울문창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02-836-2031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 14
	서울본동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07048911651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26길 16-40
	서울상도유치원	02-827-0037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3길 48
	서울신남성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02-587-613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8
	서울은로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02-824-0309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15-1

	서울행림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02-523-1355	서울특별시 동작구 솔밭로 47
	소망유치원	02-823-8871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119
	송림유치원	02-523-77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다길 95
	승혜유치원	02-822-9430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 21길 15
	시현유치원	02-6949-4442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8길 50
	양문유치원	02-834-686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흥대로 644-1
	열림유치원	02-825-50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49
	예림유치원	02-817-1455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151
	요요유치원	02-836-67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8 현대 아파트 101동 앞
	은혜유치원	02-822-3450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6길 29
	중앙대학교부속유치원	02-815-014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47
	총신대학교부속유치원	02-591-540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행복유치원	02-813-614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만양로26
	행복한숲유치원	02-813-614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만양로26
초 등 학 교	서울강남초등학교	02-824-4471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길 15
	서울남사초등학교	02-522-0333	서울특별시 동작구 혜안길 36
	서울남성초등학교	02-595-5471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3길 57-14
	서울노량진초등학교	02-815-127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0
	서울대림초등학교	02-822-1984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길 22
	서울동작초등학교	02-537-177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29길214
	서울문창초등학교	02-836-2031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길 14
	서울보라매초등학교	02-836-3001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30
	서울본동초등학교	02-815-104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26길

	서울삼일초등학교	02-3477-947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3나길 27
	서울상도초등학교	02-823-2168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 21길 62
	서울상현초등학교	02-826-9740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길 133
	서울신길초등학교	02-815-64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16
	서울신남성초등학교	02-521-6268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8
	서울신상도초등학교	02-822-695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4
	서울영본초등학교	02-815-43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12가길 69
	서울영화초등학교	02-824-6051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8길 3
	서울은로초등학교	02-824-0309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15-1
	서울행림초등학교	02-523-1352	서울특별시 동작구 솔밭로 47
	서울흑석초등학교	02-815-3276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87
	중앙대학교부속초등	02-815-0144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35
중 학 교	강남중학교	02-814-5635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5길 29
	강현중학교	02-815-3939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3라길 22
	국사봉중학교	02-823-87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0길 20
	남성중학교	02-520-7500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69길 166
	대방중학교	02-831-2503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24
	동양중학교	02-814-9651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9길 94
	동작중학교	02-591-6595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39가길 83
	문창중학교	02-821-2359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2나길
	사당중학교	02-537-71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9 가길 58
	상도중학교	02-5808-9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가길 72
	상현중학교	02-815-83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가길 2-19
	성남중학교	02-815-1332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길 74
	송의여자중학교	02-810-77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79
	영등포중학교	02-815-2051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8길 5

	장승중학교	02-812-44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가길
	중앙대학교부속중	02-827-911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24
고 등 학 교	경문고등학교	02-535-1302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71
	동작고등학교	02-588-4196	서울특별시 동작구 솔밭로 51
	서울공업고등학교	07086403106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1길 46
	수도여자고등학교	02-2102-3509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73
	숭의여자고등학교	02-810-78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79
	신동신중정보산업고	02-591-9217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33마길 27-1
	영등포고등학교	02-816-8323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4가길 74-22
기 타	누리학교	070-7772-3240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53 (대방동)
	서울삼성학교	02-823-7430	서울시 동작구 양녕로30길 19-4)
대 학 교	중앙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02-820-6363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 교 310관 B208호 학생생활상담센터
	송실대학교 상담센터	02-820-0814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송실대학교
	송실대학교부부가족상 담연구소	02-822-5317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송실대학교 연구관 317호
	총신상담센터	02-3479-054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총신대 학교 제 1종합관 101호 상담센터

<표 2>. 센터

기관명	연락처	주소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02-525-11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99
동작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599-3301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63-26 사 당2동주민자치센터
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 센터	02-599-3260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63-26 3층
동작구정신건강복지 센터	02-820-4072	서울 동작구 사당로 253-3 유창빌딩 2층
동작관악 위(Wee)센터	02-810-179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가길 35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 센터	02-834-1355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시립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슬기동2층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02-834-64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02-836-1385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동작청소년문화의집	02-816-797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바길 5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02-823-4567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11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02-814-366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동작가정폭력상담소	02-826-2121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98 가나빌딩 3층
허그맘 허그인 보라매센터	02-2138-2911	서울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16 보라매아카데미타워 609호
라파심리상담센터	010-6397-3927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38 2층
마음나루 심리상담연구소	02-532-56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53-3 (사당동) 남성빌딩 205호
동작아동발달센터	02-6398-5999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89 2층, 3층

<표 3>. 도서관

기관명	연락처	주소
구립 김영삼도서관	02-827-0557~8	서울시 동작구 매봉로 1(상도1동 611)
사당솔밭도서관	02-585-8411~2	서울시 동작구 솔밭로 86
동작어린이도서관	02-823-6750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길 98
대방어린이도서관	02-813-6740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길 55
약수도서관	02-823-1907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2바길 64
동작샘터도서관	02-533-675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63-26
다울작은도서관	02-3473-336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0길 132
국사봉숲속작은도서관	010-5849-2327	서울시 동작구 양녕로23길 27

## 참고문헌

- 권영임(2012).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지, 16(2), 123-142.
- 김경희(2016). 수용전념치료(ACT)프로그램 효과의 메타분석에 대한 융합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7(5), 145-153.
- 김동은(2015).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 범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선(2004).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성, 전귀연(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1(12), 207-228.
- 김수연(2020). 코로나 블루, 코로나 앵그리 - 여러분의 마음은 괜찮으신가요?, 여성우리, (64), 14-17.
- 김수진, 도현심(2001). 부-모간 양육행동의 관련 변인: 부부관계의 질, 어머니의 인성 특성 및 아동의 초기 기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01-114.
- 김순기, 유영주(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43-64.
- 김현진, 김민(2016).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 공격성과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5), 97-122.
- 박경일, 이상주, 권기형(2004). 부모 양육태도와 귀인성향 및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 177-201.
- 박명숙, 송사리(2011). 형제자매들에게 발생한 아동학대가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4), 49-74.
- 박새봄(2014).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 부부관계의 매개효과.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숙, 임안나(2017).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

- 향. 교정복지연구, 49, 59-85.
- 박철웅(2003). 부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숙(2008). 아동학대 경험이 청소년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시교육청(2020). 서울교육공론화 정책권고안.
- 송수진(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지희(2019). 수용전념치료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은경(2016). 아동·청소년의 방임 및 학대 경험이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현주(2010).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학대경험과 청소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 정서인식과 부정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귀여루(201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이들의 학교적응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2(1), 99-108.
- 안나(2013). 부모의 애착방임과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 성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재용, 서은란, 임경희, 신재현, 김정범. (2013).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의 표준화 연구. 생물치료정신의학, 19(1), 46-56.
- 여성가족부(2014). 청소년 정책리포트.
- 여성가족부(2015). 2015 가족실태조사.
- 예남희, 민하영(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을 매개변인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5), 67-74.
- 원수연, 최미경(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아동기 애착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역할만족도의 매개적 역할. 한국아동학회지, 36(3), 115-138.

- 윤진영(2003). 아동기 학대경험과 보호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2017). 우울과 불안증상 취약성개입에 대한 예비연구. 인지행동치료와 수용전념치료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32-53.
- 이동훈, 김지윤, 강현숙(2016). 메르스(MERS) 감염에 대해 일반대중이 경험한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55-383.
- 이미영(2010). 부모양육태도와 가족의 구조적요인이 자기통제력 및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서영, 곽대훈(2020).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16(1), 139-158.
- 이유경(2020).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오프라인 범법비행과 사이버 폭력에 미치는 영향 : 스마트폰 의존도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송미경(2018). 메타분석에 기초한 우울과 불안증상에 대한 ACT(수용-전념치료) 기반 집단상담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635-661.
- 이은희(2020). 발달장애 청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장애수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를 조절 변인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순(2010). 부부관계가 어머니와 유아의 행동 및 유아의 정서불안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회지, 14(3), 37-56.
- 이진선, 정문자(2007).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역할 만족도 및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5), 85-94.
- 장선웅, 정혜정, 이주연(2011).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경험과 부부친밀감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4), 93-111.
- 장선희(201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 어머니가 지

- 각한 부부관계의 매개효과.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주혜, 박정운(2010).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127-150.
- 정옥분, 정순화(2007).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조소희, 정혜정(2008).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기분화가 핵가족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73-890.
- 조유진(2011). 공격성과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아동과 권리, 15(1), 67-88.
- 중독포럼(2020). 코로나19 전후 음주, 온라인게임, 스마트폰, 도박, 음란물 등 중독성 행동변화 긴급 실태조사.
- 진미정, 성미애, 손서희, 유재언, 이재림, 장영은(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 Fam. Environ. Res. 58(3), 447-461.
- 진달님(2008).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가족건강성 및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기원(200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과의 관계.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난경(2004). 부모의 원가족 분화수준과 자녀양육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희(2013). 애착이론에 근거한 대인관계 증진 집단예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선(2019). 부·모가 지각한 원가족경험이 부부관계를 매개로 자녀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 문제행동의 사회적 비용구조분석 연구.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2020). 2020년 9월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
- 허묘연(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2(2), 170-189.
- 현소진(2019). 대학생의 이성관계 만족도,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 성인애착불안 및 거부민감성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Boss, P. (2002). Family stress management: A contextual approach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Carlson, D. L., Petts, R., & Pepin, J. (2020). US couples' divisions of housework and childcare during COVID-19 pandemic. <https://doi.org/10.31235/osf.io/jy8fn>
- Fegert, J., Vitiello, B., Plener, P. L., & Clemens, V. (2020). Challenges and burden of the coronavirus 2019 (COVID-19) pandemic for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 narrative review to highlight clinical and research needs in the acute phase and the long return to normality.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14, 1-11. <https://doi.org/10.1186/s13034-020-00329-3>
- Spitzer RL, K, Williams JB, et al.(2006) A brief measure for assessing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the GAD-7, *Arch Intern Med* 166, 1092-7. [www.phqscreeners.com](http://www.phqscreeners.com)